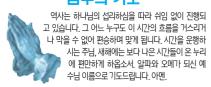
금주의 기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 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

(베드로전서 4장 7절)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5호** 2011년 12월 24일 (토)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1 세계10대 종교뉴스 '오사마 빈 라덴 사살'선두

타임스, RNS, AP 선정, '2011 10대 종교 뉴스 발표

2011년 한 해 동안 굵직한 뉴 스들이나 사건들이 많았지만 국 가에 따라 뉴스를 보는 시각은 달 랐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올해 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지만 자국 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뉴스 비중 이 달랐다.

미국대표통신사인 AP는 알카 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 사 살을 `올해의 10대 뉴스` 1위로 선 정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 브 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 언론사들 과 공동으로 작성한 10대 뉴스에 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1위 에 올랐다. 타임지는 2011 한해 를 장식한 표지 인물로 "윌가 점 령 시위대"를 선정하면서, 종교계 10대 뉴스 선두로 몰몬교의 약진 이 두드러진 해였다고 보도한다. 또 미국언론 방송계에서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의 결성체 인 "RNS(Religious Newswriters Association)"은 지난 10일 부터 13일까지 소속 회원 300명 이상의 기자들의 온라인 서베이 를 통해 AP통신과 마찬가지, 오 사마 빈 라덴 사살사건을 탑으로 선정했다.

AP통신이 미국 언론 편집인과 뉴 스 제작자(PD)를 대상으로 매년 조 사해 선정하는 '올해의 10대 뉴스' 에서 빈라덴 사살은 전체 247표 가 운데 128표를 얻었다. 동일본을 강 타한 대지진 · 쓰나미와 방사능 유 출은 60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아랍의 봄'과 '유럽연합(EU) 재정 위기`가 3위와 4위에 올랐다. 애플 공동 창업주이자 정보통신(IT)업계 거목인 스티브 잡스 사망은 미국 내 에서 대중적 관심을 많이 끌었지만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 언론사들이 뽑은 `신흥국의 목소리: 2011년 세계 10 대 뉴스'에선 1위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였다. AP가 선정한 뉴스에서 는 9위를 차지한 `반월가 시위`를 신 흥국 매체들은 4위로 꼽았다. 미국 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해 신흥국 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AP에서는 10 위 안에 선정하지 않은 루퍼트 머 독 소유 언론 해킹 파문을 유럽, 미

국 채무위기 소식에 이어 6위에 올 린 점도 관심을 끌었다. 잡스 사망 도 7위를 차지해 그가 미국보다 다 른 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었음을 증

전통적으로, 타임스의 10대 뉴스 선정은 권위가 있다.

먼저 타임지는 2011년의 인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돼 논란이 되고 있는 "윌가 점령 시 위대(Occupy Wall St.)"를 선정했 다. 부와 권력을 소유한 1%에 맞서 더 이상 이들의 노리개나 희생양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99%가 되 겠다는 시위는 이제 폭력 양상으로 접어들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시 위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어서 타임지는 2011년의 10 대 종교 뉴스를 발표했는데, 몰몬 교를 "올해의 종교(Religion of the Year)"로 선정했다.

〈3면으로 계속〉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Lord!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세미나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자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한국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시무)에서 "너는 말씀을 가 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말씀의 활

부디 참석하시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

▶ MIDLY장소 한국 금란교회 ▶숙소 워커힐 호텔

■ 참석대상

1)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 록 금

목사 · 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1년 10월-2012년 2월 29일) (2012년 3월1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한국현지등록: 50불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이메일:sunny@kapcq.org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www.rptse.com

퀸즈장로교회 11년째 '사랑의 과일바구니' 전달



사랑과 나눔의 계절을 맞아 각 교회, 기독단체들 이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선다. 911테 러 때 시작한 사랑의 과일바구니를 11년째 이웃들 에게 전하는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지 난 14일 150개의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다. 박규성 목사부부와 장미은 사모, 남녀 전도회 회원들이 능

숙한 솜씨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플러싱 109경 찰서와 소방서, 마케도니아교회, 한국요양원, 밀일 선교회, 국제장애인선교회, 새생명선교회, 한인봉 사센터, 뉴욕상록회, 홈리스 센터 등 지역 한인커뮤 니티 및 선교단체, 병원 등 20곳에 전달됐다

〈유원정 기자〉





영적 유익은 있다!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운 동행...이민목회 모델 제시



2011년 본지가 보도한 10대 뉴스

교회로 진화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 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2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하							
브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l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여교 ⁽

◇ 제 출 서 류 ◇

-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⑤**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기독교교육학 석사 대졸 및 동등학력자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석사 역학과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학 석사

-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❷ 원서접수마감 :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6시
- ❸ 입 학 시 험 : 2012년 1월 28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④ 영 성 훈 련 : 2012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역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신자의 성공은 믿음과 순종에 달렸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 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 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고 자식은 하나도 없었지만 "네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고 의심치 않았으며 하나 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롬4:19-22).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 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으 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 동으로 옮겨 순종했다는 사실이다. 그

리고 그는 마음이 인자하고 적선(積善)을 많이 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시장하고 피곤한 빛이 보이면 억지로라도 쉬어가게 하고 온갖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자기 양을 잡 아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후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런 점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조 상, 축복의 조상,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 라함을 본받아야겠다. 그는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 다(창22:1-10).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야고보는 다 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 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 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약2:21-24)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꿈을 이 루고 소원성취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대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우리 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 여드리는 것이다. 성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믿 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순종이란 희랍어로 '휘파쿠오'라 하는데 이 단 어는 노예가 자기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 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자세인 것이다. 성도가 구원 받고 복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생명과 복된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추면 믿음은 즉시 따라오기 때문이다. 순종은 마음이 하 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증이다. 불경건은 불순종을 낳고 진정한 경건은 순종을 낳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은 하나님 사랑함의 유일한 증거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속하 였고 무조건적 이었고 전폭적이었고 완전하였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체질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 에 "아니오, 싫습니다, 못합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예!" 하였다. 순종과 불순종은 길 들여진 습관의 모습이다. 순종을 반복하면 순종의 체질이 되고 불평을 반복하면 불평의 체질이 되고 불순종을 반복하면 불순종의 체질이 된 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고 복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순종은 축복 의 언약이 지속되는 조건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을 하면 크 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교단중심 교회에서 기능위주 교회로 진화

크리스천센추리가 전망하는 새 세대 위한 10교회 모델 소개

미국 주류교단들의 마이너스 성장에는 다양한 요인 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다. 특히 백인들이 주축인 교단일 경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일 경우가 많고,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 있고, 교회 건물 은 1950년대에 지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단구조는 너무 복잡하기만 해 효율적인 차원 에서는 비생산적이고, 크리스천의 의무로서 주일, 교 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하 나 둘씩 도시로, 대형교회로 떠나지만 이들을 붙잡을 예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 다. 더욱이 목회자들의 도시선호 현상으로, 선득 시골 교회로 가겠다는 목회자들도 절대 부족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센추리(Christian Century)는 미 국장로교회, 캐롤 하워드 메릴 목사가 제안하는 10 가지 교회 모델들을 제시해준다(Tribal Church : Ten church models for a new generation - What kinds of communities are working well?).



1)대형교회들의 교회개척 모델 대형교회의 선교비나 교단 지원 을 통해 교회가 개척된다. 교단이 나 교인들이 지켜볼 때,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교회개척 모델이다. 그 러나 문제는 너무 보수적이라는 점

삶"을 추구하는 신앙공동체들이 증 가하고 있다(Missio Dei of Minneapolis, Wayne Meisel of the Bonner Foundation)

4)교회와 비즈니스 결합

적 성장을 나누게 되고, 바로 이런 기능들이 신앙 공동체의 형성을 가 능하게 한다.

7)음식/식품 교회 이는 교회공동체와 지역의 파머 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9) 팝캐스트 교회

인터넷이나 아이 폰을 통해 예배 실황을 중계한다. 실제로, 뉴욕의 한 팝캐스트 교회는 50명밖에 앉을 수

대형교회 개척, 신뢰도 높지만 지역사회 연계는 미비 비즈니스와의 결합, 인터넷 교회 등도 시대편승 모델

이다. 교단이나 대형교회의 신학적 결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 에 부응해야 하는데도 교단이나 모 교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면 성장 에 문제가 된다.

2)다문화 회중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며 교회 사역 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 는 영역이 바로 지역사회의 변화이 다. 지역사회에 이민자들이 유입돼 있는데도, 연결고리가 없으면 문제 가 된다. 따라서 기존 회중에 이민 자들 즉 히스패닉이나 아시안 회중 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문화 회중 교회가 성립되게 된다. 다문화 회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주 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닌 중립적 사역 관계로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3)신-수도원식 커뮤니티

도시 생활과 첨단 기술에 대한 분주한 일상에 지친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내는 "간소하면서도 단순한

미국 사회에서 늘고 있는 교회 모 델로, 교회와 비즈니스가 결합해 만 드는 유형이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모델은 바로 에벤에셀커피하우스와 내셔널커뮤니 교회의 결합이다. 또 한 교회 구성원들 중 여성교인들이 보석류를 팔아 교회 재정을 채워나 가는 형식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5)목회자와 비즈니스 결합

제프리(Kirk Jeffery) 목사는 목 회자인 동시에 커피 제조업자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수도원 전통에 따 라 포도주나 맥주를 제조하는 시설 을 교회에 들여 놓는 유형들이 늘 고 있다.

6)예술/공예 교회

뉴욕 브루클린의 교회(Art Church)는 교인들이 공예 교실에 서 만난다. 이들이 공예나 미술 같 은 예술 영역을 사역에 확대시키는 것은 바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며,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랑 이나 음악회 등에서 만나 서로의 영

스 마켓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지 원,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교회 역시 시골 지역에 농 장을 직영하면서 파머스 마켓을 직 영하는 경우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8)비영리기관과 교회의 결합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 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 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

없지만 동시에 만 명에게 예배실황 을 전해줄 수 있다. 만약 예배를 지 켜본 만 명이 10달러씩만 헌금해준 다면 담임목회자의 사례비를 충당 할 수 있다.

10)인터넷 교회

코이노니아 회중교회와 두 번째 삶을 위한 제일장로교회는 인터넷 상의 교회이다. 즉 오프라인에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교회이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v@chpress.ne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D.Min with Concentration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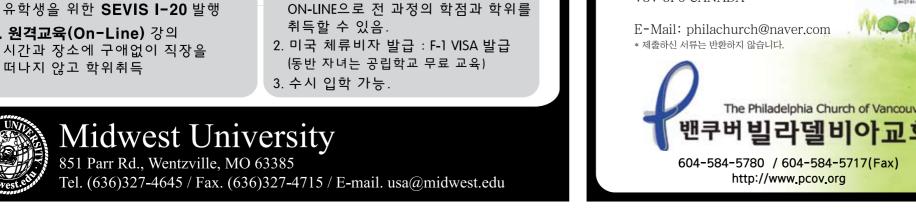
MASTER of Divinit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Midwest 특징

1. 직장을떠나지 않고 세계어디서나







LA@chpress.net

NY@chpress.net

사 고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 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

면 우송해 드립니다.

지역별 배부장소

한국서적

복음사

호산나서점

두란노서적

죠이기독백화점

▶ 기타지역

커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NY사무실

LA사무실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조지아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도르가기독교서점

생명의말씀사(LA)

생명의말씀사(OC)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뉴욕, 뉴저지 지역

할렐루야 기독백화점 (718)762-0011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718)762 - 1200

(323)737-7699

(714)636-7430

(562)865-4949

(626)810-0014

(213)382-4538

(714)530-2211

(213)382-5400

(323)766-8793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탬파한인장로교회

아틀란타 말씀사

헤브론교회

지구촌교회

큰무리교회

주예수교회

새한교회

전기현회계사

볼티모어교회

영생장로교회

필라안디옥교회

(718)886-4400

(323)665-0009

(우송료 별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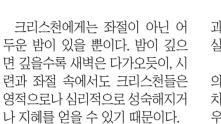
DIRECTORY 2012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영적 유익은 있다!

리더십저널닷넷, 목회자/정신과의사 척 데그로트가 전해주는 절망의 다양한 유익 소개

1895년 미국 남부 알라바마 주는 비통한 슬픔에 잠겼다. 목화 재배로 유명한 이곳에 갑자기 목화바구미가 들끓기 시작했다. 목 화수확은 절반으로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돌았다. 도시는 삽시간에 실직자와 결식자의 탄식소리에 휩싸였다. 그때 일단의 농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밭에서 목화 를 뽑아내고 그곳에 땅콩을 심었다. 농부들은 '절망의 땅'에 '희 망의 씨앗'을 심었다. 20년 후, 이곳은 '땅콩의 수도'로 불릴 만 큼 풍요로운 도시로 변모했다.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세워진 목화바구미 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우리는 목 화바구미에 감사한다. 그 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 에 감사하노라."

목회자이자 정신치료전문가인 척 데그로트(Chuck DeGroat) 는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절망은 오히려 영적 또 는 심리적 유익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Spiritual or Psychological: Dark nights often have many dimensions).



사도 요한이나 아빌라의 성 테레 사는 어두운 밤을 영적 정화와 조명 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사도 요한 과 기도로 치료하면 된다고 좌절과 실의에 빠진 교인들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오랜 경험과 고대 신비주 의에서 얻은 경험이 있다. 무조건 고 치려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배 우게 될 것인가로 패러다임을 전화 하는 것이다.

북미 상황에서 실패와 삶이 버거 운 것은 종종 문제들로 간주된다. 따 게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공 통점이 있다. 한마디로, 현명한 영혼 은 어두운 밤을 바로 구속의 순간으 로 받아들이지, 결코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19세기 설교자 중에서 가장 위대 한 설교자로 칭송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 각한 좌절을 경험했다. 종종 밤잠을 이다. 따라서 정신분석, 운동, 명상 과 같은 치료요법이 수반돼야만 치 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 료법에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 아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놓기까 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암담하고 너무 긴 암흑의 밤을 보냈다. 그러

탈진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고침 말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패러다임 전환해야

은 크리스천에게 어두운 밤은 영적 인 측면과 심리적 영역이 서로 교차 된다고 이해한다. 즉 마음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서 어두운 밤을 보내 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정을 통 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본 것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좌절을 단 순히 신경 화학적 문제로만 정의한 다. 그래서 안정제나 진통제를 투하 해 문제가 되는 신경 부분을 치료하 면 된다는 단편적인 처방을 내린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좌절을 너무 영 적으로만 상담해, 심리학적 치료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말씀 라서 직선으로 올곧게 나아가야할 인생에서 어긋난 것으로 취급받는 다. 결국 목회자들도 좌절, 의심 그 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을 보면 목회의 장애로만 보지, 오 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 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경우는 드 문 편이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은 고난과 좌절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 면, 물론 약간의 인간적인 갈등과 의 심의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들은 곧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가는 시간이자, 하나님 앞에서 순전 하게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진하

못 이루고 그 정도가 심해 설교까지 도 못할 정도로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침대에 누워도 걱정과 기 우, 염려에 밤을 하얗게 세는 상황 에 처했다. 그러나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 라"는 말씀에 기대어, 절망이 주는 유익을 십분 받아들여 당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심리학의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간단한 치료법을 망각하거나 지체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정 서적인 부대낌이나 고충에는 반드 시 심리적인 확증이 요구된다는 것 나 부활이라는 새로운 변형의 사건 으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쓰셨다. 예 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 역시 어둡기만 한 밤에서도 자신을 정화하며 낡은 자아와 생각을 다 내 려놓고 새롭게 입혀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 권이 아니겠는가?

(Chuck DeGroat is vice president of Newbigin House of Studies, a therapist, and a pastor at City Church San Francisco)

〈1면에서 계속〉

선정 이유로는, 몰몬교가 미래의 종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즉, 인 구 대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그 리고 교인들의 열정과 사역이 충분 히 미래의 종교가 될 수 있다고 보 도했다.

여기에 공화당 예비경선주자들 중, 미트 롬니와 존 헌츠먼이라는 정 치가들 역시 몰몬교인이고, 보수 진

영의 대변자로 알려졌던 글렌 백이 몰몬교로 개종하면서, 더욱 더 관심 을 끌게 된 것도 몰몬교의 화려한 상 승을 부채질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사제, 로버트 핀의 구속이다. 캔자스 시에서 사목하는 핀 신부는 어린이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복 잡해지고 확대되자, 다른 지역으로 보내 문제를 접으려고 했다. 그러나

핀은 계속해서 몰래 카메라를 통해 여아들의 사진을 찍었고 경찰에까 지 파급되자 캔자스시 교구는 경범 죄로 핀을 구속시키게 됐다.

타임지의 10대 종교 뉴스 중 기독 교 관련 뉴스들만 선별하면,

5위. 이집트 콥틱 크리스천들의 박해, 9위 메노나이트 교인들의 턱 수염/구레나룻 제거로 인한 남성의 권위 문제, 10위 캘리포니아 수정교

회의 파산, 가톨릭교회로의 양도 이 전 등이 선정됐다.

그러나 2011년 종교계 지각 변동 을 가장 확실히 반영한 보도는 바로 RNS가 뽑은 10대 뉴스이다.

30년 전 결성된 RNS소속 종교기 자들은 단연코 AP통신과 마찬가지 로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사건을 탑 뉴스(No. 1 Religion Story of the Year)로 선정했다. 즉 911테러 주

범의 사살을 반기면서도 용서, 평화, 정의 그리고 보복만이 최선인가? 등

> 이다. 두 번째로, 2011년 벽두부터 불거

로 인한 국회 청문회이다. 동 청문회 의장인 뉴욕 하원의원

에 대한 반성과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2011년의 뉴스로 선정한 것

진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범죄 증가

피터 킹(공화당)은 911테러에 따른

른무슬림 커뮤니티의 극단화에 따 른 잇따른 혐오범죄 증가에 대한 대 안으로,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의 미 국계 무슬림들이 중도, 온건주의자 들이지 극단적이거나 원리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켰다.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과 반감에 따

(860)643-4738

(813)881-0069

(678) 957-1021

(847)394-8454

(301)460-1656

(301)476-7613

(410)337-9448

(804) 560 - 7500

(215)542-0288

(610)828-6760

(215)402-9922

(704)332-565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RNS가 선정한 종교계 10대 뉴스 들은 다음과 같다: 〈7면으로 계속〉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은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입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쉐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2012년도 MDiv 및 DMin 과정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 모집

1.미래

- 미군 군목 장교 진출
- 미주요교단 안수가능
- UCLA 와 Stanford가 속한 종합대학인준 기관을 통한 세계수준의 학교발전
- 영어강의를 통한 세계화 교육
- 이민목회담임,부교역자,전도사,평신도 지도자 사역
- 세계선교지에 신대학장, 교수, 선교기관장, 선교사 사역
- 일터사역자 양성

■ ATS인준 목회학석사,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19 99 99 99 99 9 16 66 66 66 66 66 66 66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쉽을 통한 교육
 -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영성과 제자도, 교회성장학)
 - -찰스 크래프트 (내적치유, 영적전쟁, 문화인류학)
 - -에드 실보소 (Global Transformation)
- IT, 음대, 간호대 복수전공을 통한 Crossover 전문인 양성
- 미 주류 종합대학 기준의 철저한 학습과정과 결과평가

3.편안한 교육

- 정부 학비 보조 가능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On-Line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시스템
- 영어강의 / 통역강의
-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편리한 교통
- 교수들의 멘토링 지원
- 이중언어 및 성적우수자 전액 장학금 지원
- Writing / Speaking Center 무료운영



HEPHERD UNIVERSITY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상담 및 입학문의 213-481-1313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주님! 이런 제가 어떻게 ?

장영희라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계시다. 그는 한살 때 소아마 비를 앓아 1급 장애인으로 평생 4개 의 발, 그러니까 두개의 다리와 목발 을 짚은 두개의 다리로 살아가는 여 인이다. 그런데 또 유방암에 걸려서 두 번의 수술을 해서 겨우 회복되었 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새 척추 암으 로 전이가 된 사실을 알았다. 그때 그 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걸림돌이 디딤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게 유방암에 척추암 을 선언 받은 소아마비 1급장애자의 입에서 나올만한 얘기인가? 소아마 비 하나만 해도 인생에 힘들 걸림돌 이다. 그런데 유방암에다가 척추 암 까지 걸림돌이라 하기에는 너무 커 다란 암벽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 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자가 또 물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 하게 만드셨다면 어찌 당신의 인생 은 불행에 불행 또 불행의 연속입니 까?"하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 하더란다.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걸 림돌들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 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 문입니다" 놀라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번번 이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 이 깊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거센 파도를 두려워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밀려 오는 파도를 올라타는 즐거움을 노 래하듯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영성을 타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 이다.

첫 번 성탄절 배후인물인 마리아 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었다. "마 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 어 생각하니라"(눅2:19). 상상도 못

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마음깊이 담아 두고 생각했다. 마음 속에 담아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드 디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 는 예수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 신 앙은 놀라운 일, 납득이 되지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해서 불만과 원 망으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 속에 깊이 담아두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한번 생각해보라! 동정녀 마리 아라고 하는 여인도 수 천 번이라도 외치고 싶지 않았겠는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할 얘기 가 많겠는가? 요셉이라는 남자도 마 찬가지다.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하 지 않은 약혼녀가 점점 배가 불러온 다면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는가?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듣 고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했고 마리 아와 정혼한 요셉도 조용히 해결하

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 모든 말씀을 지키어 생각한다"고 그 랬는데 본문의 생각한다는 말은 하 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제가 이것 이렇게 견디기는 힘든 데 앞으로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 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 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 주세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진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질문하는가가 대단히 중 요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희망을 선택하라"는 책이 있다. 희망을 위한 10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이것을 선 택하면 희망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 이다. 그런데 3번째가 바로 "왜"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선택하라는 것 이다.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어 떻게"라고 수습과 해결책을 찾을 때 비로소 희망이 열린다는 말이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가 아니 라 이 어려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인생의 걸림돌들 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 니까?" 라고 수습과 해결을 위한 현 실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 아가야 하다.

이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 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기 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 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헛된 질 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 으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 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지각에 뛰어 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 음을 지켜 주시고 뜻밖의 지혜를 주 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

푸/ 른/ 초/ 장



이정익 목사 (신촌교회)



성경에는 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장차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 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약속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 의 오심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 리고 그런 중에 마침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 니다. 본문은 그 약속 그대로 예수 님이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아 이를 낳았다고 세세하게 증언하고

환영해야 할 이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학수 고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고 700년 전부터 이미 예고하셨습 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일에 대 해서 100여 번이나 예언을 하였습 니다. 그래서 모두 학수고대하며 기 다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성경 최 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 경의 중심은 "장차 예수를 보낸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셨으며 53장에서 는 그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전체에 메시야께 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100여 번 이나 됩니다. 그러니 마땅히 기다리 고 환영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영 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 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집 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라엘 민족에게서 메시야가 태어 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님 섭리의 주역이자 주연자들이었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베들레헴 고을에 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

다. 결정적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

다. 이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하실 때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오 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은 모두에 게 방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 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을 벌써 알고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아무도 몰 랐습니다. 아무도 맞아 주는 사람이 없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 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그 날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임을 예 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를 선지자 중 서 나시리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 니다. 그랬으면 마땅히 그곳을 집중 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처소를 예 비하고 전체적 연구 기관이라도 세 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 때문에 우를 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어찌 시골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는 것입 니다. 이는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동시에 지독한 편견입 니다. 이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은 보석을 돌이라고 하고 돌을 보석이라고 우기게 만듭니다. 이 편 견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여 예언과 계시를 무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제사 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옆에 끼고 다 니며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당 시 서기관들은 성경의 예언서를 매 일 필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더 빨리 알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알고 사 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렸어야 합니 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관 심은 신앙의 삶 보다는 뇌물에 관 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안목이 흐려졌고 그 결함은 자 신은 물론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눈도 멀게 하고 그 시대 를 보는 분별력도 잃게 만든 것입 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예수님 오 신 날 낌새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세상에 오셨 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지 않던 지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셨습 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오신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와 만난 사 람은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문 만 열면 만날 수 있었던 여관집 주 인도 몰랐는데 그 멀리 동방 오늘의 이라크 땅에서 온 사람들이 미리 알 고 찾아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동방박사들에게 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다린 사 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천사들이 예 수 태어나심을 계시해주었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거리가 문제가 아 닙니다. 시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감으로 천사들 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 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다 림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예 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말씀대로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스가랴 9장9절,누가복음 2장 3-7절

모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은 큰 배려입니다. 사도요한은 예수 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 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인카 네이션(Incarnation)" 하셨다는 말 입니다. "인카네이션"(Incarnation) 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한 문으로는 "成肉身(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 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선물 중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곳에서 예수 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열광하고 환영

결정적 하자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환영도 축하도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700여 년 동안 기 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 에 오셨는데 누구도 몰랐습니다. 또 한 맞이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 의 무성의 가운데 세상에 오셨습니

의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4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단 지 0.1%만 예수를 메시야로 인정합 니다. 그 0.1%의 사람들도 나라 밖 에서 예수를 믿고 건국 후에 귀국 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오늘 이스 라엘은 기독교를 유사종교 중 하나 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일까요? 그것은 편견 때문입니 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이 100여 번이나 기록되었습 니다. 그것도 유대 고을 베들레헴에

들이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끝 까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 했습 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자 고소득층으 로 많은 것을 누리는 기득권층이었 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려 고 새 인물이 나타나면 누구라도 제 거해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 신들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 에 없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 게 이 기다림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배의 굉동체, 교육의 굉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통하여 신약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끝까지 확장한다는 Vision을 가지고 13년전 복가주 산호세 인근에 위치한 팔로알토에 세워진 남 캠페교단 소속의 사람과 은혜가 풍성한 한빛 성서 교회에서 영성있는 담임 목사님을 초반합니다.

■ 행병 뿐이 - 조건 사람 목욕되긴

■제 출 처 ■전 호

1. 복음적인 정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절차에 의해 남 침레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2.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 3. 명이과 한국어를 편하 구사 하실 수 있는 분

Full Time 사역자로 본 교회의 사례 기준에 따라 대우함 (가족 의료 보험, 주택 수당)

한빛성서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은 목회관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및 Resume를 한빛생서교회 청병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31일까지

670 San Antonio Rd #2, Palo Alto, CA 94306 650-269-2670, 650-472-9094[F] Email: smartectech@gmail.com web: www.hanbit.us.

한빛 성서 교회 청빙 위원회 위원장 임대순 집사

한빛성서교회

(Hanbit Bible Church) 687 Arastradero Road, Palo Alto, CA94304



영혼구원 및 처유와 회복을 꿈꾸는 라파션교회(Rapha Mission)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제 19기를 개최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품으신 분들과 평소 침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참여 하실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본 적인 침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주 최: 라파선교회(Rapha Mission)

강 사: 오덕상 장로(오덕상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정: 1월 12일 ~ 4월 12일 (총 12회)

시 간: 매주 목요일 7:00pm ~ 9:40pm 등록비: \$250 (교재용 바인더 및 침 제공)

장 소: 생수의강교회

2865 W. 7th St. L.A., CA 90005 (7가 웨스트 모어랜드와 후버 사이)

라파선교회홈페이지 www.larapha.org

◆등록은 1월 12일 개강일에 직접 등록 하실 수 있으며 등록당일은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오행침 침술강의를 수료하신 분은 본 선교회의 국내의 의료선교사역에 통참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의 (213)703-0920

APHA 라파선교회



Fax.(323)665-0056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5

교회력에 의한 연간교육과정 세우기 를 1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한 해의 마 지막 과정인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에 대한 교육과정만 남겨 놓았습니다. 지 난 호에서는 대강절에 대한 교육과정 을 다루었습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절 기는 누가 무슨 표현을 해도 어린 아이 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임에 틀림이 없 습니다. 신학자들의 정확한 예수 그리 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논쟁이나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의 기원에 대한 논 쟁거리 등을 불문하고 성탄절은 누구 에게나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그 의미 가 너무 진귀한 것이기에 성탄절은 모 든 사람에게 많은 기대감과 소망을 주 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논쟁으 로 인해 우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복음적인 의미 가 희석되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감

수성이 예민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을 통한 복음 전도는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에

게도 어릴 적 크리스마스는 지금도 고

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보

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

아하게 된 것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

던 것도 바로 성탄절 때문이었습니다.

가을부터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느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리고 그 때 함께 했던 친구들과 선생 님 그리고 추운 겨울밤 난로 가에서 담 소하며 울고 웃던 일들이 지금껏 살아 있어 평생 동안 교회생활에서 뗄 수 없 는 젖줄처럼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성 탄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크

正母型符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6)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하기 위해 예 수님의 탄생 스토리로 접근해 가야 합 니다. 당시의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문 화적 상황을 아이들 스스로 학년에 따 라 알맞게 자료를 찾아오도록 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교과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문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런데 왜 하필 그 어려운 환경, 그러 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 짐승과 함께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는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해야만 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

이 성령으로 여자의 태를 빌려 출생하 셨습니다. 즉 죄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 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1:18-20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 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 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 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 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 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 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 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성 경의 기록이 바로 그 증거로 사용되어 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 예수님은 몇 퍼센트의 인간으로 오셨 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50%쯤만 사람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 학생들 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체로 100%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100% 사람 은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님께서 반드시 100%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주어야 합 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초와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과 상함을 모두 대신하 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 같이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모 두 탕감하시기 위해서는 조금도 우리 와 다르지 않아야 우리가 당할 죄의 벌 을 다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 리의 죄를 완전히 다 탕감하실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50% 만 사람이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보다 50% 밖에 아프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의 죄도 50% 밖에 탕감되지 못하 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몸을 통해 이 땅 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 통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기근과 버 림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매 맞음과 찔 리심과 버리심...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 의 모든 죄의 벌을 다 감당하시기 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 의 의미임을 주일학교 학생들로 하여 금 발견케 하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 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탄, 학년에 따른 역사 지리 정치 문화적 상황 자료 찾아 교육 죽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의미 확신시켜야

리스마스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 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절기교육에 서 이와 같은 질문은 아주 중요한 동 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여러 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 을 이야기 하면 즐거운 캐롤송이 들려 오고 여기저기 화려한 성탄추리장식으 로 분위기가 고조되며 특히 어린이들 은 산타클로스를 떠올리고 크리스마 스카드와 선물 그리고 장난감들을 기 대하지요. 젊은이들은 남녀가 데이트 하는 절기로 인식되어져 버렸고 쇼핑 하는 계절, 여행하는 계절, 파티와 먹고 마시는 일로 세상은 소란한데 정작 예 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이 되어버 린 것입니다.

마치 생일잔치를 하는데 생일을 맞 이한 주인공이 없는 생일파티처럼 말 입니다. 본래의 성탄절의 의미는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해 버린 오늘 의 성탄절을 아이들로 하여금 발견하 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발 전시킬 수 있는데 다음 단계는 성탄절 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의 실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 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 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 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이 실제로 나타 난 사건이 4000년 만에 현실로 나타났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 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자 의 후손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 은 남자의 계보를 이어 가기 때문에 여 자의 후손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야만 했습 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출생 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아 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으신 분만이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였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7:1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마1:23)이라고 성경 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 고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또한 이 세상에 낳으실 곳도 많건마는 왜 하 필 마구간에서 나셨으며, 구유 위에 누 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53:5 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 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수 그리 스도가 담당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 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욕과 천대, 버 림, 모든 슬픔과 고통을 홀로 당하셨습 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뺨을 맞으셨으 며, 머리털을 잡히시고 얼굴에 침 뱉음 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 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

바로 나,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추 위와 가난과 아픔과 고난과 멸시와 천 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 신 것을 발견케 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 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 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 났다는 것이요,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 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 고 집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접근해 갈 때, '우리'라 는 복수를 사용하면 신앙한다는 것, 믿 는다는 것에 대하여 나의 전인격적 의 지와 별 상관없이 덤으로 따라가는 것 으로 잘못 인식될까봐 믿음을 수용하 는 것은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 령님과 나 일대일의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 에게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기쁨, 즉 복음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절 기교육과정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와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 해진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나오는 노엘 (Noel)은 무슨 뜻인지요?

-나성에서 이희은

A: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영어로 Christ(그리스도)와 Mas(미사)를 합쳐서 Christmas가 되었는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배"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엘(Noel)로, 이태리에서는 나탈 레(Naeale), 독일에서는 바이나 흐텐(Weihnachen)이라고 합니 다. Christmas를 줄여서 X-Mas라고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크 라이스트의 첫 글자 X에 Mas를 붙여 표현한 것은 오늘날 세계적 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으나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교회 는 1월 1일, 1월 6일 3월 21일(춘분절) 등에 예수탄생을 축하했지 만 교회적으로 아무런 행사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3세기경 신 학자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 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 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짓달이며 정복당 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록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상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 적인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 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 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 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 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 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 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 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 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 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3회기 고시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목사고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자는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일정

서류접수기간: 2011. 12. 15(수) - 2012.1월16일(後)

2) 서류점수방법 : 우편으로 점수합니다. (단, 16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P.O.BOX 741411

Los Angeles, CA 90004 서류심의: 2012년 1월 17일(화) 장소: 총회사무실 서유합격자발표: 2012. 1. 18일(수) 총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시 참.(www.koams.org)

5) 목사 논문

가)제 목: 이민교회의 교회사약 나)제출기한 : 2012년 2월 18일(토)e-mail도 접수 (vpclv@hanmail.net)

다)작성방법 : A4 35~40대 (아래한글 10 포인트, 행간 160, 여배 좌우 25, 상 20, 하 25) 6) 2012년도 목사고시 설명화(홈페이지)

 논문합격자 발표: 2012, 2.20(활)~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할. 8) 필단고시: 2012, 3.7(수) 오전 10시; 필단고시 ~ 장소:개별봉지

9) 선교 실기 및 면접: 2012.3.7(7) 10) 최종 함격자 발표 : 2012, 3 , 10(토) 오전 11시부터 (언터넷 홈페이지 계시)

2, 고시전형방법

1) 서류심사 후 함께자에 한하여 목사 논문심사가 있으며 2) 논문심사에 함격 한 자에 한하여 필달고서에 응시할 수 있다.

3. 음시자격

1) 2012. 2. 14일 교사일 현재 만 27세부터(1985년 2월 14일 이전 출생) 2) 2012년 2월 본화가 인정하는 보수교단 산학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3)교회를 시부하는 자 이어야 한다.

4. 제출서류

총회고시원서

①고사원서 1종(사진부착) / ②목사 추천서 1종 / ②이력서 2종(사진부착) ③목쾌경력 확인서 2) 본만준비

②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 각 1봉(1개월 아내) ② 대(신)학원 봤던 증명 ③ 최종학교 성적표 ④ 고시료 \$500.00

⑤ 교회 주보 2012년 1월 1개월분 (삼드시 교회 직인 몇 당회장 서병 날인)

6. 기타 공지사항

1) 고시 출제 범위는 본 교단 종발고시 문제집에서 출제한다. (단, 20%정도는 고시위원화 재량으로 총제 할 수 있다.)

(기한 준수)

1) 필답고시 과목 -조직신라, 교회사, 헌법, 성경, 영반상식

② 제목 - 자유롭게, 강도시간은 5분 이내, 타이평

A4용지 약 3매(아래한글 10P, 출간격 160)

⑤ 원고제출 ~ 원고는 논문 제출 시 1부 작성하여 제출 할 것

5. 필답고시 과목 및 설교실기

2) 설교 실기(감해설교)

① 본문 - 184장11-12절

2) 절수된 서류 및 고시로는 업체 반환치 않는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kpca3927@yahoo.com)

4) 본 광고는 대한예수교장문회(태석)홍희와는 무관합니다.

백석총회 미주교회협의회

The Backscok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고시위원장 서재일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의 한족(푸조우,호키엔)



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 집단으로 그 수가 12억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이 중 국 본토에서 살지만 오늘

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거주 하고 있다.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캄보 디아, 태국 등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국 가에 살고 있는 한족 공동체에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국 한족은 만다린어(MANDARN •官話), 꾕뚱

어(CANTONESE •廣東), 호키엔어(HOKKEN • 福建) 등 다양한 중국 방언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 방언들이 비슷하긴 하지만서로다른방언을사용하는시람 들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한족은 몽고족의침입후 1276년에 타 국으로의 이주를 시작했다. 잇따른 재난 과 분쟁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특히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정착 해기반을잡았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 든지 배타적일 만큼 확고히 도심에 지리 잡고 상업과 시업분야에 종사했다. 오늘 날 그들은 인구 비례 상으로는 소수임에 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삶의 모습

이주한 중국 화교들은 주로 도시에 서 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서 구화된 국가들에서 주로 사업가로 활 동한다. 그들의 시업 범위는 작은 상점 에서부터 국제적인 기업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그들의 주거형태도 광범 위해 작은 아파트에서 값비싼 맨션에 까지 이른다.그들 대부분은 중국식 식 생활을 지키고 있으며 쌀은 여전히 그 들의 주식이며 식기도구로는 젓가락 을선호한다.

압

2차대전 중의 일본침략기간에 민족 주의 운동이 모국을 떠난 화교들 사이 에서 전개됐고 이 운동의 구성원들이 중국을 열정적으로 지원했다. 공산당 이 1949년에 중국을 점령했을 때 많은 중국 화교들은 혁명주의지들을 지지 했다. 이는 그들이 공산당의 이데올로 기에 동의했던 때문이 아니라 강한 지 도력과 자신들의 본국인 중국본토의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 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주목

의 대상이 됐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공 신당의 중국 본토 장악을 지지했기 때 문에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한족들 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도 공산혁명 을지지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많은 화교들은 그들의 문화와 언어 를유지하고있는데 각자살고있는 나 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한족 언어 들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 교들은 중국 전통관습을 지키는데 특 히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그러하다.이 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고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뿌리깊은 중화시상(중국 문화가 모든 문화의 중 심이라 여김)에 대한 우월성 때문이다.

한족은 그들의 자녀를 애정으로 돌 보고 있으며, 특히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관심을 쏟는다. 아이들은 학교생활 에서 우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또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학교공부를 위해 투자한다. 한족들은 공손하기로 유명 하고 가능한 한 토론을 피하고자 애쓴 다. 그러나 한번 논쟁이 시작되면 이를 멈추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 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체면 (SAVING FACE) 때문이다. 공개토론석상에 서진다는것은체면을잃는것으로생 각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이런 상황들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신앙

화교들은 대개 여러 철학들의 혼합 형태로 특징지울 수 있는 자신들의 전 통중국종교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 간을 거듭하면서 불교, 유교, 도교적인 부분들도 섞였다. 그들의 중심된 신앙 은 "조화 유지(중용)"라는 개념이다.

또 한족은 미신에 집착하는데 주로 어떤 행동이 조화를 증진시키고 행운 을 가져올지 결정하고자 할 때 별자리 점들을 보곤 한다. 그들은 현세에 거주 하는 영들의 신전이 있다고 믿는다. 또 한조상영혼들이이땅을떠돌다가대 접을 잘 받으면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

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귀신의 존재 도 믿는데, 이는 자신들의 죽음에 한(恨) 맺힌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한 맺힌 영혼들은 대개 악하고 짓궂다. 반면 선한 영혼들은 생전에 착 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혼령으로 인 식하면서 이런 선한 혼령들은 자신들 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그러 나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미 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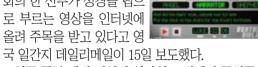
필요로하는 것들

한족들의 영적 결핍은 심각한 상태 이다. 그들이 정착한 나리들 대부분이 복음에 개방적이며, 중국 방언으로된 복음회를 위한 자료들도 충분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네팔, 탄자니 아,태국등에거주하는화교들중거의 극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들은 여전히 미신과 잘못된 종교의 굴 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성경랩하는 신부 유튜브 인기 폭발

[미션라이프] 영국 성공 | 회의 한 신부가 성경을 랩으 로 부르는 영상을 인터넷에 🛭



영국 동부 데번 지역의 업라임 교회에서 목회를 하 는 개빈 타이트(40) 신부가 그 주인공. 그가 제작한 ' 비트박스 바이블'은 동영상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3 주 동안 1만5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루 수천 건이 넘는 영상이 게재되는 가운데 이뤄낸 놀라운 성

타이트 신부는 누가복음 2장 1-21절의 내용을 랩 가사로 불렀다. 3분 30초짜리 영상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있다. 일부 구절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 춰 각색됐다. 타이트 신부는 비트박스를 하는 천사와 목자, 랩을 하는 신부 등 1인 3역을 모두 소화했다. 노 래는 최신식 '랩송'에 견줘도 손색이 없었다. 타이트 신부가 성직자로 임명되기 전 전문 음악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는 7년 전까지만 해도 유명 비트 박스사이트의 편집자와 영국 비트박스 챔피언십의 심 사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네티즌들은 비트박스와 랩, 그리고 성경의 오묘한 조합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성경이 귀에 쏙 쏙 들어온다"고 극찬했다.

시리아 반정부 시위 격화, 기독인에 '불똥'

시리아의 시위 소용돌이 속에 현지 기독교인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오픈도어)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향한 반대 시



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속에 떨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세력 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 수가 정든 고국을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 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Internet News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 표적이 되고 있다. 현 대통령의 부친인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혹독한 독재체제 속에 이슬람 근 본주의 세력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기독교 공동체 는 그런대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위 정국 은 종교적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했다.

오픈도어는 홈즈의 경우 정부군이 철수한 이후 수 니 무슬림들이 거리를 장악했으며 일부 과격주의자들 은 교회를 공격, 교회 물건을 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 다고 전했다. 또 여성들에 대한 납치와 강간, 살해 사 건도 발생해 기독교인 여성들의 경우 지내기가 어려 운 상황이다.

오픈도어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 면서 비교적 안정감을 누려왔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시리아에서 벌어 지고 있다"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고국을 등지려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했 다. 현재 시리아에는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 가운데 10만 명은 이라크 전쟁으로 피신한 이라크 기 독교인 난민이다.

불황 한파에도 자선냄비 '펄펄'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 고 구세군 자선냄비는 '펄펄' 끓고 있다. 한국 구세군은 18일 서울 여 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 서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전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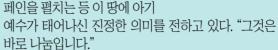
다. 이번 모금활동은 지난 14일 이영훈 목사가 서울 명동에서 자선냄비 봉사에 참여한 뒤 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에게 자선냄비를 교회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이뤄졌다. 박 사령관은 이날 오전 11시 예배에 참 석해 이 목사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세군은 앞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희귀난치병 다섯 천사를 위한 특별 자선냄비-사랑을 채워주세요' 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 자선냄비는 희귀난치병을 앓 고 있는 다섯명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인 자선냄비 성금은 '유리공주 원경이'로 세상에 알 려진 신원경(면역성결핍증)을 비롯해 김태영(청각장 애 및 뇌수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명으로 치료 중), 김진영(귀가 점점 안 들림), 차예은(키가 멈춘 병), 김주 안(재생불량성빈혈) 어린이의 치료비로 사용된다.

한편 구세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모금액은 20 여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이 같 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모금 목표액인 45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수 탄생 기쁨, 나눔으로 두 배!"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 기독 교 구호단체들의 손길이 분주 하다. 이들 단체는 지구촌 곳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 기 위해 2011년 크리스마스 캠



(사)글로벌호프(대표 조용중) 홍보대사인 배우 윤희석 씨와 미스코리아 한경진씨는 해외 빈곤아동들에게 학 용품 세트를 보내는 '메리기브(Give) 크리스마스' 캠페 인을 진행하고 있다. 13~15일 숭실대에서 캠페인을 여 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윤씨는 "나눔으로써 행복해지고, 그러면 의미가 있 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해외 빈곤아동에 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이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랐다. 그의 팬들도 거들었다. 팬카페 '수호천사 윤희석(cafe.daum.net/Yoonnala)'에서는 카 페 회원들과 함께 릴레이 기부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메리Give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보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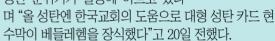
희망적인 지구촌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글 로벌호프는 개발도상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 망을 심어주고자 '호프 라인(Hope Line) 2000 프로젝 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팀앤팀(이사장 이남식)도 '크리스마스 선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선물은 '착한 물'을 가리킨다. 즉 6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과 오랜 식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착한 물을 크리 스마스 선물로 전달하자는 것이다. 팀앤팀은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아프리카 케냐 타다델타 지역의 학교 3곳에 우물을 파준다.

이와 함께 팀앤팀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별한 크리 스마스카드를 판매 중이다. 한 디자이너의 재능 기부 로 제작된 이 카드에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희망 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후원카드가 함께 들어 있다. 카드를 구매하고 희망후원카드에 메시지를 적어 팀앤 팀으로 보내주면, 희망후원카드를 모아 케냐지역 학 교 3곳의 아이들에게 우물을 통한 착한 물과 함께 후 원자들의 따뜻한 마음도 전달한다. 이 캠페인은 팀앤 팀 홈페이지(teamandteam.org)와 네이버(해피빈) 다 음(희망해) 싸이월드(사이좋은 세상) 등 온·오프라인 에서 진행하고 있다.

베틀레헴에 한국교회 대형 성탄카드

[미션라이프] 예수가 탄생한 베들 레헴에 한국교회의 성탄 카드가 발송 됐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활동 중인 강태윤 선교사는 "베들레헴에 성탄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



카드에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인사하는 모습과 성탄·새해 인사가 담겨있다. 인사는 '즐거운 성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한글로, '전 세계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어로 씌어져 있다. 카드는 서울 광염교회(조현삼 목사)가 지원했다.

대형 성탄 카드는 5m×8m 크기의 대형 플랜카드 로 제작돼 성탄 광장 근처 빌딩에 부착됐다. 강 선교 사에 따르면 성탄 카드는 지나는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한국교회의 마음이 현지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는 것.

현재 베들레헴의 성탄 분위기는 거리 전역에서 물 씬 풍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팔레스 타인이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국 가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기쁜 성탄을 맞고 있다는 전언이다.

강 선교사는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앞 성탄 광장 에는 대형 무대가 설치돼 매일 저녁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며 "지난 15일에는 대형 성탄 트리가 점등됐고 오는 24일 저녁에는 전 세계에서 참가한 합창단과 지 역 합창팀이 함께 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가 열리게 된 다"고 말했다. 음악회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 부에 속한 이슬람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수도 라말라 와는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인 이곳은 다른 팔레스타 인 지역과는 달리 범기독교(가톨릭, 정교회 포함) 인구 가 60%에 달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 이 거주하고 있다.

세계로 빨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Tel.(709)679-7676, Fert/T02967-9191 6554 W. Dezert Inn. Sd. Las Vegas., NY 80166

불티모어 교회 답입목사 : 이영설

Tel.(410)337-8465, 569-5181, Fax.337-8465 1800 Besidery Ave., West, Latherville, MD Protes



THE (254)414-6705, (254)50)-4833 408 R, Stb St., Klimes, TX 78541





워싱콘테시아장로교회 답입목사 ; 한세영

THE PROSTRATIVE SELECT, FOR PROSTRATIVE ASSESSED ASSESSED

남부한인장로교회

THE PRODUCT SEED, Face DROBUST - NEXT BARRY (TOLDINGS - DELT) 3019 Michael Rd., Charlotte, NC 20270

새시온침레교회

Tel. (200)455-0191 5007 Pecific Are, SE P.O. 20X 5568 Lecty, HR 56608

당입목사 : 송성십

담임복사 : 정용교

아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당임복사 : 검선만 Tel : (960) 843-4738 Fex : (960) 847-6686 300 Chapal Reed, Hancheeler, CT 66040



THE COSSESS-6065, FAX, (DSSSESS-6042) 7782 Ripting St. Arvede, CC 8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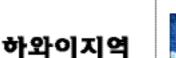
답입목사 : 김 유

시에를팽강장로교회 단입목사 : 박은일

주인정아대비: 오픈 10:00 주일 2억에대: 오픈 11:15 수요지나이비: 모든 7:30 위비기도와: 오전환(00)를 금이 되었답: 오전환(30 Tel (200527-036) / Fax (200524-1746 4040 K.F. 105th St. Seette, WA 36125 www.kspcambtle.cog

> 주 예 수 교 회 담임폭사 : 배현환

Tel (SCAESSO-7500, Fax (SCAESSO-7514 16501 Acobes Ad, Richmand, VA 22225



아가빠선교침레교회 담임복사 : 이남수 주철 1부명에: 오픈 9:00 수월 2부명에: 오후 11:00 수월 3부명에: 오후 11:00 수요한(대학: 오후 7:00 저희 기도 한: 오픈 (제-또)

Tel , (306)736-5011 1635-A Paiklo Ave., Honolula, NI 96516

풍고메리교회

Tel: (810)2225 - GEST, 287 - 271 - 7777 Fex: (810)255 - 0882 3290 Morris Rd, Lanedele, PA 13446

일간사 제자를 교회

Tel. (901) 500-5049 / APE;5011455-5176 650 Early Rd. Liftle Book, AR 72211 WHAT. JULIS COM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 최래근

주점 1학원에 2존 8:30 수립성이 이제 2분 9:30 수집 2부에에 2준(11:00 수 조 에 제 2후 8:00 주 조 제 표 2후 8:00 제임 세탁/15: 오픈 5:00

담임목사 : 괜남수

답임목사 : 나왕삼



답일목사 : 정배근 주인 1부에게 오전 8:50 무실 2부에게 요전 11:00 무실 2부에게 요전 11:00 무실성공부: 오픈 50:00 수오에게 되어 5:30(보는) 서비 6:00(보)

Tet (253)585-1989 7461 S. Verde St. Tecome, NA 58408

벡스카운타장로교회

Tel (216)945-1517, Fax (216)945-2096 1660 Roobourne Rd., Levillown, PA 1505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THE CHOTISES-BASE FOR SUCTIONS-3152 3270 Bits wood St. April, AK 99518

탁코마 삼일교회

답입목사 : 김종은

주입 (무대로 : 오전 6:00(후구의) 수입 244대로 : 오건(6:19/50) 수입 344대로 : 오건(1:30(존리의) 수요등업대로 : 오픈(1:30(존리의)

답입폭사 : 유계일

주업 1구대비: 요전 10:00 주업 2후대비: 요전 11:00 전 대 대 요전 11:00 주업지비에대: 오루 2:00 수 요 대 대: 오루 7:00

에덴장로교회 답인목사 : 송창변 주일원이에서: 요본 \$:00 주일원이에서: 요원 \$1:00 수 요 해제: 오쿠 7:00

Tel, (806)739-1004, Cult. (806)215-4692 1963 6th Ave., Honeletts. Hd 95616



Tel (015)481-1236, Fex.(415)401-0823 3166 St. Johns Lenn, ESScott City, MC 2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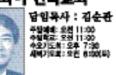
덴 엘 교 회







Tel (200)035-0307, 231-0404 Fax (203)036-1435 8702 E. B St. Tecome., 164 56445 하와이 한국교회



Tel. (908)277-2986/667-1775/642-2522 1361 S, Beretania St, Hos., H 96814



Tel (2555510-5075, Per (255-474-95)5 8424 S, Yakine Ave, Tacome, NA 55444

보스뛴장로교회

Tel: 18085450 -4879, Fex: 15585456 -6467 F Main: St., Hopkinson, MA 01788

영생장로교회

Tel. (715/542-0058, Fex. (215/542-9017 706 Witner Rd., Horsbere, PA 1904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력성

11:00 ### 22:1

답임목사 ; 이용결



호뉴플루한인장로교회



〈3면에서 계속〉

입된 변화의 물결

동성애자 안수 허용.

6위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복자 시성식: 5월에

시행된 복자 시성식은 성인

시성식 직전 단계로, 백 만

명 이상의 가톨릭 교인들이

7위 해롤드 캠핑의 "시

한부 종말론" 파문: 5월에

있을 종말이 10월에도 없

8위 미시건 대형교회 담

임 랍 벨 목사의 지옥에 대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10위 영어번역 성경들의

아 새번역, NIV 성경의 성

(gender)적 어휘 사용 등이

로마에 운집했다.

었다.

만 허용

는 처음.

5위

68.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130억 광년과 6천년

지난 2008년 2월 13일자 Science Daily에는 "가장 먼 곳의 은하 기록에 도전하는 강력한 라 이벌"이 될 만한 은하(A1689-zD1)를 새로 발 견했다고 보고하였다. 1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서 빛이 지구에 도달하였으므로 130억 년 전의 은하의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은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설명은 실제 거리를 측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적색 편이'라는 빛의 성질에 근거한 것이다). 2007년 에는 적색편이가 이보다 더 큰 즉, 더 먼 곳에 있는 은하를 발견하였다고 BBC News(2007년 7월 11일)가 학계 저널인 The Astrophysical Journal(663:10-28, 2007)의 보고에 근거해서 일반에 보도를 하였다.

빅뱅 가설을

믿는(믿음이지

확인된 것이 아

님) 과학자들은

앞에 소개한 은

하들이 빅뱅 후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이 왔기 때문 에 우주의 역사가 적어도 수백억 년 되었다는 생각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 설명은 마치 '그 거리는 자동차로 40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당 신이 여기 오는데 40시간 걸렸음에 틀림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신 은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만에 올 수도 있다. 그 빛이 정말로 수백억 년 동안 달려왔는지는 아 직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직 빛에 대해 과학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 기 때문이다.

한 예가 지평선 문제(horizon problem)다. 현재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빛의 속도로는 빅

결하기 위해 상상 위에 상상을 덧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창조론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빛이 즉시 지구에 도착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을 수 있다. 전능자를 가정한 이 설명 자체는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뿐 아니라 창 조론자인 험프리(Humphreys) 박사는 성경을 중심으로 천문학 모델을 만들어 최근 발표하 였는데 그 우주 모델은 불과 6,000년 안에 수 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잘 설명하였다. 물 론 이것도 과학적 모델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델은 세상 과학자들이 풀지 못 하는 수수께끼인 "파이오니어 효과"를 말끔하 게 설명하고 있다.

파이오니어 효과(pioneer effect)란 지구에 서 출발한 우주선이 태양계 밖으로 비행할 때 이상하게도 계속 속도가 감속되는 현상이다. NASA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 고 있지만 아직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중심의 중력장을 가정하고 있는 험프리 박사의 새 우주 모델은 이 우주선 의 감속 이유를 잘 설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각 행성을 지나는 시각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추 기도 하였다.

지난 칼럼에서 우주의 모습이 마치 양파 껍 질과 같이 지구가 있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배열 되어있다는 관찰 결과를 이미 소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그런 모양이 되도록 창조의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므 로 수백만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로부 터 온 빛들도 아담이 볼 수 있도록 창조 과정에 서 중력장을 조절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러므로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 이 불과 수천년 안에 지구에 도달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것은 창조자를 무시하는 설명이고

> 코앞에 지나 가고 있는 빛 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설명 하고 있는 것

이다. 하나님은 창조 4일째 지구를 위해 태양과 달과 무시무시하게 많은 별들의 집단인 은하

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을 하 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기를 쓰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사람들의 노력과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인 이 지구에, 창조자이시면서도 우리들을 위해 우리 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 없었던 아담으로 오 신 우리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린다. "지극 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월가 점령시위



오사마 빈라덴 사망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RNS는 2011년 한 해 동안 종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화제의 인물로, 시한 부 종말론자 해롤드 캠핑을 선두로 선정했고, 유대교와 의 관계 개선에 진전을 보 인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그 뒤를, 그리고 공화당 예 비 경선에서 기독교적 쟁점 을 부각시키고 있는 전 텍 사스 주지사 릭 폐리가 올 해의 종교계 뉴스 메이커로

선정했다. 결론으로, 오사마 빈 라 덴 사살 사건은 일본 열도 를 강타한 8.9 지진과 쓰 나미보다 더욱 부각시키 는 AP통신이나 RNS의 의 도는 무엇일까? 바로 종교 인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 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 이"라는 인과응보식의 복 수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 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신앙 인의 양심 때문이다. 즉 정 의, 평화, 용서 그리고 하나 님의 은혜, 기도 등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면 먼저 생 각해야 하는 가치관이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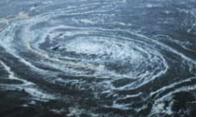
문이다.



해롤드 캠핑의 "시한부 종말론" 파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호세마 리아 에스크리바의 시성식



탐험목사 : 장향회

수원이에 : 호전 11:00 7:0 알고등에서대 : 오후 8:00

담임복사 : 김정관

주일 1부대학 오전 5:30 주일 2부대학 오전 8:00 주일 3부대학 오전 8:00 주일 2대학 오픈 3:00 주요대학: 오픈 7:30 대학대학: 오픈 5:30(대한 144

답입목사 : 초 유

답입목사 : 박종순

충신교회

194 (82) - 2-793-7740 서울시 출탄구 이윤를 302-67 (140-051)

일본 쓰나미

빅뱅 원초물질/에너지 존재 방법·폭발에너지가 별이 된 경유 몰라 지구중력장 가정 험프리 우주모델 "파이오니어 효과" 말끔히 설명

각각 7억년과 5 억년 경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믿는다. 이 런 근거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는 세상 과학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상당수 의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있다. 이런 권위적 인 압력 때문에, 수백억 광년이란 천문학적 인 숫자를 들을 때 대답을 준비하지 않은 많 은 일반 크리스천들은 기가 질리고 만다. 성 경은 창조시점이 분명하고 그 역사는 아무리 길어도 7000년이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답을 말하기 전에 빅뱅을 믿는 과학자들 이 얼마나 많은 사실 지식을 알고 있는지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그들이 믿고 있 는 빅뱅의 원초 물질/에너지가 어떻게 존재 하게 되었는지 그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가? 대 답은 '모른다'이다. 두 번째, 폭발하던 에너지가 소립자와 원자상태를 거쳐 어떻게 별이 되었 는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도 역시 답이 없 다. 별이 형성되고 질서 있는 은하를 형성하려 면 절대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2법칙에 위 반되는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어야 한다. 빅 뱅론자들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때는 반드시 기적을 포함하는 설명을 한다. 결 국 그들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4일째 기적 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설명보다 더 논리

양곡교회

Tal. (055)296-4710-4, Fax. (055)296-3464 (841-370) 214 884 6188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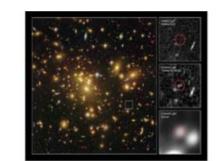
단험복사 : 지용수

주일에서 1부: 오전 7:00 주일에서 2부: 오전 6:00 주일에서 3부: 오전11:40 주일에서 하취: 오후 7:30 수요에서: 오픈 19:30(27)

왕성교회

TM (821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원학구 산림본류 1841-24 (161-029)

담임목사 : 결자연



가장 먼 은하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를 보려면 은하와 은하 사이를 계속해서 지나야 한다. A1689-zD1는 오른쪽 3번의 확대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뱅론자들이 빅뱅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우주 공간의 균일한 온도(3도 K우주 배경복사)를 설 명하지 못한다. 은하들의 온도는 모두 다 똑 같 지 않은데 어떻게 우주 공간의 온도는 어디에 서나 똑 같을 수 있을까? 균일한 온도를 유지 하려면 열 교환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방 법이 빛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빛 속도를 가지고는 빅뱅에서 주장하는 우주의 나 이인 137억년 안에 충분한 열 교환이 이루어져 우주 공간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에는 우주 공간은 너무 크다. 빅뱅론자들이 이 문제를 해

장위제일교회

TH, (67/842-688), Fax, (67/842-688) (136-651) 서울시 성축구 함께 79-12

담임목사 : 김기원

주입 1부 여배: 오전 7:30 주입 2부 여배: 오전 11:00 수 요 에 배: 오후 3:00 서 배 개도 함: 오픈 5:00 권호삼대개최회: 오픈 9:30

들이 갑자기 존재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 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 - "또 별들을 만드시고"라는 말씀만으로 설명을 끝 내버리셨다. 그 대신 창조 4일째의 기록의 거 의 대부분의 설명은 그 빛들이 지구에 비추 게 되었을 때 그 빛을 보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사람들을 온통 마음에 두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보 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셨다. 그런데 사람 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애를 쓰

눅2:14).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돈돈한교회 동경중앙교회 군포제일교회 금 관 교 회 김포제일교회 광주신일장로교회 강남중앙감력교회 답입목사 : 김동정 답인목사 : 김정병 탐험목사 : 존대진 담임목사 : 한기승 담엄목사 : 이강현 담임목사 : 노제현 주입니가목에비(부: 오건 7:40 주입니가목에비(부: 오건 5:30 주입인기록에비(부: 오건 5:30 주입인입에대: 오후 2:30 수 또 에 대: 오후 7:30 NAC (2014-200-7050), Fac (2014-200-5770 ABA (807-842-830-1 (131-230 Tel (0313765-8457-5, Fax (5353708-8636 2-15-6 Obube Sheyaku-tu, Yekyo, Japan TM (03(1977-6060~4) Fee (03(1977-606) (早)410-637 世7版 2世4 新世春子 李世春 1870 MO TO EPERU 47 ESE XX 经对 로마 한인교회 명 성 교 회 사에덴교회 성 일 교 회 삼보 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담임목자 : 한생우 담임목사 : 김삼환 단일목사 : 마장운 담임목사 : 소감식 답입목사 : 황정식 담염목사 : 귀영족 주십 1분에서 : 오랜 7:20 주십 2분에서 : 오랜 9:20 주십 2분에서 : 오랜 11:20 주십 4분에서 : 오랜 12:0 의 제 기 도 : 오랜 4:30 주입 1부에서 오전 9:00 주입 2부에서 오전 11:30 주입 2부에서 오전 3:30 서서 1부대의 오전 5:00 서저 2부대의 오전 8:50 표 대표권해 05()696~1000, 핵소 69() 896~ 8077 8개도 8합시 수계적 국업용 1512명시 New recognit or by New (1971) - 690 - 4900, Feet, 1997 - 1500 中春 (1877 - 4838) 1971 - 49 (142-1773) THE REP THE SEC. (134-630) 보는 (00 1945 - 6367 - 0. February - 6536 사용시 방반구 목가를 602-0 (159-053) THE (\$215-1964-3161-2, THE (\$117-1966-3194 사용시 강한구 목록/를 520 (159-600) TAL(B))):-6645-8655-4, Par. 5647-4862 AMMERIA 1987-4988 715-862 수 영 로 교 회 수 정 교 회 승 등 교 회 시온소교회 신 길 교 회 신 촌 교 회 안암 제일교회 탐임목사 : 마상훈 담임목사 : 김성길 당임목사 : 정품도 탐엄목사 : 조일래 담임목사 : 이신용 담임목사 : 이정익 주말 19세명 : 오랜 7700 주말 24세명 : 오랜 8100 주말 24세명 : 오랜 8100 주말 24세명 : 오랜 8100 주말 44세명 : 오랜 5100만 - 바다 주십 1부에게: 오픈 7:50 주십 2부에게: 오픈 8:50 주십 3부에게: 오픈 (1:50 주십 2부에게: 오픈 3:00 Tel.(02)9-750-0579, 사회(62)2-936-5671 서울 대표구 노고성을 40-45 THE (REPORT - 655 - 678) Fact (REPORT - 662 - 6754 전문의 사구 불류용 416 - 4 (404 - 675) TH. [02]7720-25411~4、从看现的路0-2555 (TTO-260) 地量从 音樂子 名以著 137 登以 NA (G31)763-1004、Fax /931/265-101G 著作家 全部人 名響子 の場響 419-2 MA_(B2)(- 642-1968, 从每(011)82-3-642-1968 社會營養與子 公益 1唐 63-3, (160-661) '() [이()()() - 소-(2) - (2)] 서울 등대문구 제기 2등 (46-7

주 안 교 회

74 (82)52~527~1009 전문학자 부분수 선칙4분 294~10(423~638)

담임목사 : 나곉잌

창대교회

Tel.(801)3-462-5538, Fes. (85)3-485-4508 4844 8847 8458 448-25

단합목사 : 최용도

청주주님의교회

751, (043)973-0101 / FAX, (643)374-0114 581-023 00 004 0044 0047 1/00 220-12

밝임목사 : 주시적

아름다운 동행...이민목회 모델 제시

퀸즈장로교회는 새로운 담임 박규성 목 사를 맞아 18일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오 후 4시에는 매년 성탄을 맞아 드리는 성탄 축하예배도 드렸다. 퀸즈장로교회는 38년 의 저력을 보이며 새 담임 박규성 목사와 개척설립자 장영춘 목사를 모시고 2011년 연말과 2012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일 본당 1층과 2층을 꽉 채운 가 운데 성대하게 열린 퀸즈장로교회 위임예 배는 뉴욕의 각 언론들이 많은 지면을 할 애하고 인터넷 언론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의 전말을 모두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 다. 본지는 지난 제1364호 10면의 탑 기사 를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장영춘 목사 "교회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와 바른 신학교육에 헌신" 박규성 목사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유산 계승 하겠다"



말씀을 전하는 장영춘 목사

설립 38년된 퀸즈장로교회는 2대 담임을 맞았다. 장 목사의 원로목사 추 대는 내년 2월말 본 교회 설립기념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규성 목사는 "전도사시절부터 교회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 신 장 목사님내외분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 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민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38년간 장 목사님 을 도왔던 그 열심을 제게도 허락해주셔서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 확장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사했다.



답사를 하는 박규성 목사

예배는 KAPC 뉴욕노회 위임국장 이원호 목사 사회로 기도 김혜천 목사(전노회장), 성경봉독 황경일 목사(노회서기), 설교 장영춘 목사, 특송 글로리 아중창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목사직의 영광"(엡4:7-12)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직은 하 나님의 선택으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이라며 "퀸즈장로교 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목사직은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의 임무와 사



권면하는 김남수 목사(부총회장)



축사하는 강기봉 목사(총회장)

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훈련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 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박규성 목사에게 핸들을 넘겼다"며 "이제 내 인생은 박 목사에게 달러있으니 옆 자리에 동승해서 기도하며 지도해서 차가 잘 가 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자신은 앞으로 "선교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나안에 들어간 여 호수아처럼 지혜와 담력이 있는 박 목사에게 많은 기도와 협력을 당부한다" 〈9면으로 계속〉 고 말했다.

바른선교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실버선교회(Silver Missions Fellowship)는 조기 또는 정기 은퇴후 살날은 많으나 할 일이 없어 현실은 답답하고 미래는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에게 선교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나 션교지에 가서 여생을 멋지고 보람있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복음주의적 교회중심적, 초교파적 선교기관입니다. 그 산하 실버 선교훈련원(Silver Missions Traing Center)에서는 59회 걸쳐 11년 동안 16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중 120여가정은 이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LA지역 3곳에서 실버선교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I . 목적

- 1. 선교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기초 확립
- 2. 타 종교에 대한 접근방법 습득
- 3. 실버 선교사의 특징과 장점을 선교에 활용 방안 모색
- 4. 생생한 현장 학습을 통하여 실버선교사로서의 자질 겸비 5. 교회 안팍에서 선교사 활동 살며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

Ⅱ. 대상

- 1. 선교마인드가 있어 체계적인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
- 2. 교회내 선교관련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활동 하기 원하시는 분
- 3.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선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 4. 은퇴후 여생을 선교사역에 의미있게 헌신 봉하사 하시려는 분 5.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의탁하신분

Ⅲ. 세미나 커리큘럼

- 평일 1교시 오후 7:30 8: 20 / 2교시 8:30-9:20 주일 1교시 오후 1:00 - 2:10 / 2교시 2:30-3:20
- 실버선교사의 인격과 영성
- Well Being(행복한 삶)
- Well Aging(잘 늙기)
- Well Dying(거룩한 죽음 준비) - 선교의 큰그림
- 선교란?(선교의 이해)
- 선교의 성서적 기초
- 실버선교의 소명과 준비 - 선교사의 갈등 처리
- 실버선교사의 리더쉽
- 실버선교사의 문화충격 해소 방안
- 선교사의 기도 생활 - 헬퍼쉽(HelperShip)

IV. 등록**안내**

일시: 2012년 1월 15일(주일) - 20일(금) 장소: 나침판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826-6245

일시: 2012년 1월 22일(주일) - 27일(금) 장소: 새한장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 2531 W Pico Blvd LA CA 90019

일시: 2012년 1월 29일(주일) - 2월 2일(목) 장소 : 나성제일교회(김광삼 목사) 213 S. Hobart, LA CA 90004

TEL 213-386-0685

TEL 213-388-7101

주학 2011년 12월 11일, 된조장크리회 박규성 목사 위임에내



장영춘 목사(왼쪽)가 박규성 목사에게 열쇠와 선물을 전하고 있다



박규성 목사가 위임을 받는 사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원호 위임국장





장영춘 목사가 박규성 목사부부에게 선물을 수여하고 있다. 선물을 박미 선 사모의 승용차



축하 찬양하는 글로리아찬양단



전 교인이 일어서서 권면을 받고 있다



박규성 목사부부에게 꽃다발을 증정됐다.



장영춘 목사부부에게 꽃다발이 증정됐다.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환송하는 장영춘 목사부부.



고 참석 목회자들 과 함께 기념촬영

찬양을 한 찬양 대와 오케스트라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환송하는 박규성 목사부부

〈8면에서 계속〉

위임예식은 서약/위임목사서약, 교인서약, 위임기도, 공포, 위임패 증정, 권면 위임목사에게(부노회장 김남수 목사), 교인에게(부노회장 조문선 목 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KAPC 부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말씀연구, 기도, 인내, 겸손은 전제하고, 첫째 장영춘 목사를 잘 모시라"며 "장 목사가 말씀하지 않은 무언의 말씀도 잘 헤아리고 또 교인사랑을 아내같이 하며,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하

고, 교단뿐 아니라 교계에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와 감사는 축사 강기봉 총회장, 김두해 전노회장, 축가 찬양대, 열쇠증 정,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 답사 박규성 목사, 인사 및 광고 박선도 장로, 축 도 이규본 전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회는 박규성 목사 사모에게 승용차를 선물했으며 각 기관별로 박 목사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박규성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퀸즈장로교회 전도

사로 사역하다 뉴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부목사로 섬겼다. 이후 브라질 서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7년을 사역했으며 브라질노회 노 회장과 브라질한인목회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9년 7월에는 장영춘 목사 후임예정자로 퀸즈장로교회에 부임해 2년간 수업을 받고 올해 7월 공 동의회에서 98%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유원정 기자〉

2012년 배 및 아레만찬

할렐루야! 기쁜 성탄과 다가오는 새해에 섬기시는 귀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협의회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신년감사 예배와 하례만찬을 나누고자 아래와 같이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복된 자리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 일 시: 주후 **2012년 1월 9일**(월) 오후 7시

● 장 소: **대동연회장** (718)939-2555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참가비: 50불(1인당)

● 연락처 : 718-358-0074(교협 사무실)

※ 행사 당일 접수는 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청소년센터 2012년 봄 SAT 강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예식 목사)가 2012년 봄 SAT 강좌를 오 픈한다. 대상은 10학년과 11학년으로 선착순 10명. 기간은 1월 31 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5주.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8시40 분, 뉴욕청소년센터 강의실(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에서 한다. 과목은 수학(Math)이며 수업료는 450달러로 시간당 10 달러). 강사는 뉴욕대학교 수학교육전공생과 버룩칼리지(SAT수학 800점) 중 1명.

▲문의: (718)321-1010

신년대부흥성회

뉴욕새천년교회(담임 장규준 목사) 신년대부흥성회가 2012년 1 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열린다. 시간은 오전 6시, 오후 8시30분. 강사는 박상종 목사. 한편 동 교회는 25일(주) 오후 1시30분 뮤지컬 "The Story"를 공연한다.

▲문의: (718)631-9191

사랑의 일일찻집 성황

뉴욕나눔의집(대표 안승백 목사)이 지난 17일 일일찻집을 열 고 겨울나기 준비에 나 섰다.

안승백 목사는 "한인 노숙인들을 위해 적으 나마 사랑의 일일찻집 을 열었다"며 "이번 후 원을 통해 노숙인 샤 의집에서

워시설을 마련하고 겨 울 외투, 점퍼, 장갑 등을 준비하려 고 한다"고 말했다. 또 "쉼터 렌트비 와 운영비도 이제 바닥이 난 상태" 라며 "후원자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뉴욕나눔의집은 지난 6월 1만5천 달러를 준비해 개원했으며 렌트비 는 월 1천 달러이다. 나눔의집은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 지 오픈하며 커피와 간단한 식사, 휴 식공간, 무선인터넷, 의류, 상담(소



노숙자 후원을 위한 일일찻집이 열린 뉴욕나눔

셜, 건강, 신앙)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일찻집에는 뉴욕교협 양승호 회 장을 비롯한 뉴욕교협임원단과 뉴 욕목사회 김승희 회장과 목사회 임 원, 최재복 KCS 부이사장 등이 방문 해 격려했다. 이날 일일찻집 방문객 은 100여명에 달해 경제불황의 어려 움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 심과 사랑의 식지 않았음을 보였다.

쉼터는 플러싱 35-24, 유니온 스 트리트, 지하에 있으며 후원을 원하 면 전화 (646)233-8770으로 하면 〈유원정 기자〉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뉴욕색소폰오케 스트라(NY Saxophone Orchestra, 단장 유진웅) 창단 연주회가 지난 8일 오후 8시 플러싱 타 운홀에서 열렸다. 이 연주회는 "고국 고 아돕기 크리스마스

패를 전달했다.

콘서트"로, 공연 수 익금은 고어헤드선교회를 통해 한 국고아를 돕기 위해 사용된다. 이날 고어헤드선교회 대표 이상조 목사 가 유진웅 단장에게 홍보대사 감사

유진웅 단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창단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 메 들리, 성가곡 등이 연주됐고 2부에 서는 팝클래식, 국악 민요연주와 재



즈 등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게스트로 소프라노 에리카문, 엔 젤라 조셉, 이송희 씨의 장구 연주와 제시유 앙상블팀의 대니보이, 차이 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편곡을 색 소폰으로 연주했다. 마지막에는 재 즈 순서가 있었으며 마지막엔 출연 자 부인들이 나와서 "사랑으로" 등 3곡의 앵콜송을 불렀다.

〈기사제공: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

성지순례 등 2012년 사업계획 발표

뉴욕한인목사회 40회기 1차 임실행위원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 승희 목사) 40회기 1차 임실행위원 회가 지난 19일 뉴욕복된교회(담임 최예식 목사)에서 열려 성지순례 등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1부 예배는 최예식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김수태 목사(역사자료 분과), 성경봉독 신수지 목사(사모 분과), 말씀 양승호 목사(교협회장), 축시 조의호 목사(자문위원), 축도 이병홍 목사(인권위)의 순서로 진행 됐다. 양승호 목사는 "최선을 다 하



뉴욕목사회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월례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AYC 그대로 사용...타민족 사역확대

16일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통합추진 보고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최예 식 목사, 이사장 이수일 장로)가 지 난 16일 이사회를 갖고 뉴욕한인청

소년센터(KYC, 대표 양희철 목사) 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 및 업무보고 를 했다.

AYC는 KYC와 통합을 하면서 영 어이름을 KYC로 변경하는 것을 고 려했으나 이날 모임에서는 영어이 름은 그대로 AYC를 사용하는 것으 로 잠정결정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센터가 전도차원에서 한인 뿐 아니 라 타 민족도 포용하는 사역이 돼야 한다는 2세 사역자들의 의견을 존중 한 것. 또 한글사용 시에는 뉴욕청소 년센터라고 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 다는 견해다.

또 KYC와의 통합은 서두르지 않 고 현재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으로 결의했으며 학원사역자들을 재정비하고 영어권을 활성화시키기 로 결정했다. 통합은 내년 1월 경 양 희철 목사가 사우디에서 돌아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통 합에 대한 그간의 보고가 있었다.

또 후원문제에 대해 최 대표는 후원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느 곳이 교협산하 인지 헷갈린다는 말 을 많이 한다"며 "이를 분명히 해야 후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 했다. 또 최창섭 목사는 "34회기(회 장 황동익 목사)와 35회기(회장 최 창섭 목사) 때는 할렐루야대회 시 헌 금은 모두 청소년센터로 보냈다"며 "대회는 교협에서 전적으로 지원하 고 헌금은 청소년센터로 보내 사역 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는 이번 회기 뿐 아니라 계속돼야 한 다"고 말했다.

장경혜 목사(회계)는 "매달 이사 회 모임에 수입지출 보고를 하겠다" 며 "이는 사역을 활발히 하고 사무 총장의 짐을 더는 것이며 회칙에 명 시된 기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 다.

〈유원정 기자〉



KCTV후원 음악회 연주를 마치고 양군식 지휘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십시다"(딤전4:15)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2부 회무는 김승희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김기호 목사(성지순례분 과), 회원점명 김홍석 목사(서기), 사 업계획보고 김희복 목사(총무), 식 사 기도 이미선 목사(친교분과)의 순서로 진행됐다.

"화합하며 하나되는 목사회"(요 17:23) 표어를 내세운 40회기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2월: 5일(주) 오후 6시, 자선음 악회(박인수교수와 제자초청), 프라 미스교회, 장애인 농아인 홈리스 돕 기 및 목회자자녀, 1.5세, 2세 장학금 수여 △3월: 20일(화), 랭카스터 밀 레니엄 씨어터 "요나" 관람, 일인당 30달러 △4월: 목회자 및 사모 세미 나 △5월: 22일(예정) 김삼환 목사 초청 세미나 △6월: 4개주 목회자연 합체육대회. 메릴랜드 파크 △8월: 20일(예정), 박성현 교수초청 성지 순례 성경 세미나 △9월: 9월말-10 월초(예정), 성지순례, 일인당 800달 러 지원, 선착순 50명 △10월: 교역 자 체육대회 및 야유회.

〈유원정 기자〉



KCBN 후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믿음 갖고 기도로 견디며 승리하자! KCBN 후원감사예배...후원자들과 만남의 시간

미주기독교방송 KCBN(사장대 행 문석진 목사, 이사장 윤세웅 목 사) 후원감사예배가 지난 19일 저 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 다. KCBN은 2011년 한 해 동안 방 송 후원자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 고 후원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 며 만찬을 즐겼다.

1부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사회로 경배와 찬양/뉴욕찬양마을, 기도/김 종훈 목사, 성경봉독/박태열 목사, 특송/문진영, 설교/양승호 목사, 헌 금기도/정성만 목사, 축도/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뉴욕교협회장)는 "모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출 13:21-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40세 모세가 아닌 고난을 통과한 80세 노인 모 세를 사용하셨다"며 "KCBN이 22년 을 지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을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때에 불기 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믿 음을 갖고 기도로 견디며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는 오영아 방송실장의 사회로 축사 최예식 목사, 방송가족소개와 인사/인터뷰, 직원소개, 감사패 수 여, 이사장 인사, 사장대행 인사 등 의 순서가 있었다. 인사/인터뷰는 장 경아 오영아 도회정 이예랑 조순재 아나운서 등과 박데보라 배영란 리 포터 등이 진행했다. 또 KCBN 홍보 동영상과 활동 동영상이 상영되기

KCBN은 FM104.3 WAXQ SCA 라디오수신기, 인터넷, 스마트폰 (www.kcbn.us), WMBC TV채널 63.7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이웃에 복음과 아름다운 사랑 방송

KCTV 후원 자선음악회, 천지창조 베토벤 9번교향곡 연주

장로)방송 후원 자선음악회가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주 최로 지난 18일 저녁 농 교회에서 열 렸다.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베토벤 심포니 9번이 연주됐다.

천지창조는 1. 서곡부터 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등 14. 하늘이 주 영광을 선포하고 까지 연주했으며 '핀란디아'에 이어 베토 벤 9번 교향곡(4악장)이 연주됐다.

출연에는 지휘 양군식(뉴욕효신 장로교회 시온찬양대 지휘), 소프라 노 박지원(2010년 '나비부인' 데뷔), 앨토 조공자(프라미스교회 맨해튼

뉴욕기독교(KC)TV(사장 박용기 성전 시온성가대 지휘), 테너 김인식 (뉴욕신광교회 목사), 베이스 박요셉 (쉐퍼드콰이어&오페라 단장) 등이

> 문석호 목사는 후원자들에게 감사 하며 "KC TV가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24시간 복음영상방송을 하 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미주지역을 향해 확장시켜나가기를 기도하며 준 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후원의 손 길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 혼들과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 에게 복음의 소식과 아름다운 사랑 으로 그들을 살리고 위로할 것"이라 〈유원정 기자〉 고 인사했다.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는 2012년 1월 3일(

탈봇 신학교(학장 데니스 덕스 박사 13800 Biola Ave, La Mirada,

CA9073)는 오는 1월 9-10일 목회상담학 과정으로 노만 라이트 박

사와 써니송 박사 그리고 금병달 박사 부부를 초청, 이민교회를 향

한 가정 사역 컨퍼런스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이들에게

는 탈봇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1월 2일 이전 등

록자에 한해 등록금은 100달러 이후는 120달러이며 신학생 장학혜

실버선교회(훈련원장 정운길 목사)는 LA지역 21세기 선교세미나 를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선교에 대 한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기초 확립, 타종교에 대한 접근방법 습 득, 실버선교사의 특징과 장점을 선교에 활용 방안 모색, 생생한 현 장학습을 통해 실버선교사로서의 자질 겸비, 교회 안팍에서 선교사 로 활동하며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세 미나의 일정은 1월 15일(주)부터 21일(금)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 경엽 목사), 22일(주)부터 27일(금)까지 새한장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 29일(주)부터 2월2일(목)까지 나성제일교회(담임 김광삼 목

▲문의: (714)287-2458/ familykum7@gmail.com

실버선교회 LA지역 21세기 선교세미나

수) 오전 7시30분에 JJ 그랜드호텔에서 한인사회 및 교계의 발전을

위해 '남가주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신년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남가주교협 신년조찬기도회

▲문의: (323)404-3147/박세헌 목사

택이 있다.

사)에서 열린다.

탈봇 신학교 가정 사역 컨퍼런스

복음전파 거룩한 사역에 충실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식, 45회기 계획 발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제45회 회장 이취임식을 18 일 오후4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 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김영대 회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의 소명 속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 파하며 거룩한 사역을 충실히 이뤄 가는 모든 목사님들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45대 회장을 맡으 면서 전임회장들을 인도하셨던 하 나님의 살피시는 은혜가 계속되리 라 믿으며 여러 목회자들의 아낌없 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 을 밝혔다.

45대 남가주목사회는 △목회자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하기언

장로)는 제37회 총회를 JJ그랜드호

텔에서 갖고 신임회장에 홍순헌 장

지난 11일 오후 6시에 열린 총회

는 밀알선교단과 소중한사람들 등

17개의 긍휼사역단체와 개인에게

각각 500달러씩의 지원금을 전달해

100여명의 회원과 교계단체 대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EM과 유스그룹이 주최한

Family Worship(온가족찬양예배)

이 17일 오후 7시 300여명이 참석

유아부 어린이들의 귀여운 율동

과 유년부 어린이들의 성경암송, 유

치부 어린이들의 찬양과 율동에 이 어 패밀리 워십 댄스팀의 힙합댄스

는 2세들의 문화를 1세 어른들에게

이어 김현인 목사는 사도행전

16:31-34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들이

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바울

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각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바라다"고 강조했다.

맘껏 표출해 줬다.

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부 예배

로(한소망교회)를 선출했다.

훈훈한 총회로 진행됐다.

남가주장로협의회 제37회 회장이취임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남가주장로협 신임회장에 홍순헌 장로

정기총회...17개 긍휼사역단체에 각 500달러 지원금 전달

부모와 한 자리...2세문화 체험

남가주든든한교회 EM과 유스그룹 패밀리워십



남가주목사회 이취임식에서 김영대 신임회장이 박효우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며 목

는 이창건 장로(부회장)이 사회를,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가 '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설

교를 했다. 이정근 목사는 "성경에

서 보면 사람들을 크게 '최선의 사

람'과 '최악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

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가족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최선의 사람

이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며 살

말씀에 이어 드라마팀은 "The

Doors"의 드라마로 복음을 증거했

으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서로를 위

해 기도하는 시간에는 모두가 눈물

로 회개하며 끌어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

남가주든든한교회 EM과 유스그

룹은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일

씩 교회에 모여 강훈련과 함께 연습

에 들어갔으며 모일 때마다 학부모

들은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학생들

을 격려했다. 지난 4월 본 교회 EM

과 유스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전 목

사는 미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청소

년 사역을 감당해온 전문가로 현재

복음방송을 통해 청소년상담 프로

를 담당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아가자"고 말했다.

내기도 했다.

회자간 유대관계 증진 △이민목회 에 한인 이민신학을 정립 및 1세와 2 세들 간의 간격을 좁혀 서로 좋은 목

회의 방법 나눔과 전통 보존 △이민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 며 자녀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실시 하여 용기와 비전제시 △LA지역의 복음화 대각성집회 개최 등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모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된 이날 예배는 이운영 목사가 기도 를 이우형 부회장이 성경봉독을 했 으며 류기종 목사(전 미주감신대 총 장)이 '뉘게로 가오리까'(요 6:66-69)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44대 회 장 박효우 목사가 이임사를 했다.

이어 목사회 기 이양식을 갖은 후 45대 회장 김영대 목사가 취임인사 를 했으며 박효우 목사와 정요한 목 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 변 영익 남가주교협회장이 축사를, 송 정명 미기총 회장이 격려사를, 김사 무엘 증경회장이 권면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현 목사(남가주 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쌀 나누기 모금운동이 한인타운 내 김스전기에서 열리고 있다

범교포 범교계적으로 주님정신 브랜드 되길

사랑의쌀나누기 나눔 행사 300포 추가

사랑의쌀 나누기 나눔 행사가 17 일 오전 11시 LA총영사관에서 진행 돼 예정보다 300포 더한 1,050포를 배부했다. 한편 나눔 행사에 앞서 14일 오후2시에는 한인타운 내 김 스전기에서 모금행사를 가졌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 희민 목사는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 세 번째로 10만 달러 모금, 쌀 만포 를 목표로 했는데 8만 달러이상 모 금이 되고 호응이 매우 좋다. 성탄과 연말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굶주리 고 헐벗은 분들에게 쌀 한포대지만 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때 격려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한기총 대표이자 LA성시화 운동본부 회장인 송정명 목사는 "많 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 린다. 앞으로 남은기간 교계 단체 협 조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 사랑의쌀 나눔운동 대회장 인 한기형 감독은 "성탄의 계절에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 감사하다. 작 은 정성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돼 감사하다. 특히 나누는 운동이 저 변확대 됐다. 기독교정신 중심으로 다른 기관 단체협조로 섬기는 지역 이 늘어났다. 이런 운동이 범교포 범 교계적으로 이뤄져서 이 운동이 주 님정신의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 지 속적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 쌀 나눔행사는 17일에 이 어 21일은 미주평안교회에서 단체 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박준호 기자〉



▲문의: (847)612-8520/정운길 목사

조영석 전도 사의 찬양과 간 증의 밤 콘서트 가 아가페홈미 션에서 열리고

아가페홈미션(원장 이강원 전도사) 은 찬양사역자 조영석 전도사 초청 찬양과 간증의 밤' 콘서트를 14일 저 녁8시에 개최했다.

조영석 전도사는 10세 때 도미해 지금까지의 겪었던 일들에 대해 간 증으로 풀어나갔다. 조 전도사는 "아 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픔이 있 다는 것은 상처를 회복하기위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하 며 "청소년기에 정체성 혼란 등으로

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찬양사역자가 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조영석 전도사는 '나를 지으신

힘들어 하며 방황했지만 주님의 붙드

주님', 'Lord are give you my heart',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십자 가 그 위에'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EM과 유스 그룹이 찬양하고있다

나성순복음교회

uigessaffynkoo.com / mun isige.com Tal.(323)813–4682, Fax.(323)813–4654 1753 H. Esgamoni St. L.A., CA 86027

디아스포라선교회

Tel. (213)219-4890 / Fac(323)283-8 213 Cabrid Carrie Margant R , 第 L A, CA - 7(三年 新聞: 新 母 至初 10(年)4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Tel: (804)584-5780, Fez. (804)584-5717 5135 132nd St., Surrey, S.C., Cenada, VSV 5F6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유원

조실 (부러석: 요즘 7:45 무실 1부러석: 요즘 2:30 조실 3부러적: 요즘 1:30 조실 4부여석: 요즘 1:30(26) 유럽(20) 대 2후 1:30(26) 유럽(20) 대 2후 7:30 유럽(20) 대 2후 7:30 유럽(20) 대 2후 7:30

Karne Dispus Major Ceta

내프 : 전영자 목사 ·존보에 다한 관광가소병을 기가에고 했습니다.

담임복사 : 임진백

주입 1부에에: 요한 3:50 주입 2부에에: 오랜 11:50 주입 3부에에: 오픈 11:50 주입 3부에에: 오픈 11:50 수 요 및 바:프루 7:30 주입대: 요한 100대급 250대표

담일부자 : 지윤성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ㆍ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세계로삘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Tel. (F121381-8702, Fex. (213)381-2535 170 Beskil Pl., Loe Angeles, CA 90004 세계소망교회 단엄복사 : 오세훈 주십 1년에서 : 오픈 후:30 주십 2년에서 : 오픈 11:00 주십주년에서 : 오픈 11:30 수요에서: 오픈 7:30 음숙에서: 오픈 8:00 유백에대: 오전 5:30 (월-5)

Pat. (213)745 - 9151 (CH), JUNISTO (333 - 950) B24 W., Wester Shrif, L.A., CA 90015

원셔크리스천교회

Tel (2031384-4772, Fari 2031384-0038 634 S. Hormando Ave., L.A., CA 90056

담임목자 : 엄규셔

주입:무에게: 오전 8:30 주입:무에게: 요한 8:40(전) 주입:무에게: 요한 1:30(관리 주입:무에게: 요한 3:30(관리 구성사기로 1:5천 *00(만~ 원 주 일 학 2:5천 1:10(교육급단에계는 요한 3:00

남가주리디머교회 남가주사빵의교회 단엄복사 : 김요성 주입(구에서: 요전 8:00 주입(구에서: 요주 1:00 목 요 에서: 요주 7:00 서 에 에서: 요전 8:00(박~박)

Tei (714)772-7777, Fex (714)772-0777 1111 H, Brockharst St, Anaheim, CA 32501 미주 평안교회 방주선교교회 단임목사 : 송정병 담임목사 : 박동서

사창조교회

답인부사 : 정병계 Tel. (310) 325-0601, Fax. (310) 326-4262 23814 S. Vermont Ave., Herber City, CA 96710

온예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인랜드교회 담염목사 : 박신철 ment intendicturel, erg Tel (903/622-2224, Fez (903/622-448 1801 N. Gioc Ave., Presons, CA 9178

감사한인교회

prou (kaning)vingelyaruk, com Tel (714)225-0540, Fax(714)525-4636 6559 Knott Ave, Boone Park, CA 90621

대흥장뽀교회

Tel (310)710-2244, Fez (310)719-2220 15611 S, Physica St., Cadera CA 95248

베멜한인교회

샌디에고 영락교회

단험복사 : 김생길

751744 28 745 862744 28 845 863744 281145 863744 281145

(전기, 중심선) 군요한당학원: 모두 7:35

땀임목사 : 권영국

주요1부에로 오전 6:30 주요2학에로 오전 11:70 수 및 대표 모두 7:30 급 및 대표 제대 8:00

답임목사 : 손원식

주입화에 1부: 오전 7:30 주입화에 3부: 오전 8:30 주입화에 3부: 오전 8:30 주입화에 4부: 오주 1:00원(8) 존, 전시합이에서: 오픈 1:30 오후 1:30

담임폭사 : 김명막

수월 (학에와 오전 8:00 수월 2등에와 오전 11:30 수 및 학 및 오전 11:30 수 및 학 제:모두 7:30 세탁 자동화 오전 8:00% nch: (868)671-5609 / home: (858)594-6540 2150 Unic St., Sen Diego, CA \$2111 Promot/1530 Protoc.com Tat (316)209-2571, Familiasi269-0616 sere, lange, prij 2720 Montrouwkre, Montroue, CA 91920 주님의영광교회

답일목사 : 신승훈

나성열린문교회



Tel. (273) 613-1500, (F) (215) 413-1611 1825 Wilshim Blod, L.A., CA 90057

드 림 교 회 땀임목사 : 이성뻔

Tel (6261793-0830, 0200 Fez (6261793-6412 1905 E, Colorado Rd, Pasadiana, CA 91108

복음장로교회 답입목사 : 검상대 주립 1부터를: 오픈, 9:00 3학에를: 오전 11:00 엄마하다: 오선 2:00(대학부) 금요하다: 오쿠 7:30

THE SECTIONS -- COLD
FOR W. La Fiebra DL, La Fiebra, CA 20035

엄바인침레교회 답일복사 : 반봉수

Tel. (949)867-9425 / Fez. (949)867-9472 6151 Websel Ave., Irvine, CA 92604

창대교회

답입복사 : 이춘준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조실 (부대석: 요조 8:00 주실 2부대석: 요조 11:00 급설대석: 요조 11:00 수요한당대석: 요주 7:30 세계기도착: 요조 6:40(4-2) 요건 6:00(4)

담임목사 : 신원규

주십1는에대 요면 8:00 주십 대에대 오건(11:00 중에 대 대 오건(11:00 수요 에 대 오픈 8:00 수요 에 대 오픈 8:00 대 대 기 요: 오픈 6:30(11)라

Tal. (\$25)909-7323, (F)(\$25)639-1656 1218 S. Fairlez Arts, L.A., CA 90015

라하브라 삼성장로교회

브리지교회

Tel. (626)326-6177, Fez. (626)667-3378 1567 E. Sectito St., Curine, CA 31754

오랜지카운티제입장로교회

Tel. (714)661-9529 / Fex. (714)379-3097 8630 Belon Ave., Westerbaler, CA 92683

코너스톤 교회

Tel. (310)630-4040/CHI, Fazt/310)630-6 Mild S, Vermet Am, Harter City, Cl. 8719-2

🎆 담임복사 : 장세정

담임목사 : 협영민

주설 1학에서: 오픈 8:15 주설 2학에서: 요한 10:00 구설 3학에서: 오픈 11:45 당 이 의 제: 오픈 11:45 중 조는 의 제: 오픈 11:30 수 오 이 제: 오루 7:30 네네크로 오픈 103-10, 6:30

담임복사 : 이종용

주합(부터취: 오전 \$100 추립 대 이제: 오픈(1:00 수 요 예 제: 오픈 7:30 세계기도회: 오전 6:30(학-조)

호텔 (부여박 오선 E:00 추립 2부에에 오건 11:00 추립 3부(U): 9분 11:00 추립 3부(U): 9분 11:00 구요한(에에 오후 B:00 세 에 기도학 오선 E:40(Be) Tel (218)481-27/6 / Fex(218)481-3761 1045 Beverly Strd. Lee Acquies, CA 80025 LAsolidrock@goss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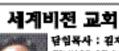
남가주든든한교회

땀임꼭사 : 김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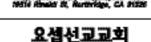
답입목사 : 지용대 주입 1분에다: 요전 8:30 주입 2분이다: 요전 8:30 주입오부분입이다: 요전 1:30 수요에다: 오후 7:00 의미지도: 요전 6:30대설)

Tel (213)389-0377, 3079 518 E, Western Arro., LA, CA 00020





주입(부천합에): 요선 후:00 주입2부 대 이 제: 오천(1):15 주십청(대대: 오후 8:00 원모에대: 요후 8:00 원모에대: 요한 8:30 Tei,(818)363-5987, Par,(818)368-6982 19514 Rimakii St, Hurthridge, CA 31526





TAI (253)845-4030 2728 James W Wood Blod, L.A., CA 9060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국 부흥운동에 작은 불씨 키울 것"

OC교협 송년모임, 2012년 사역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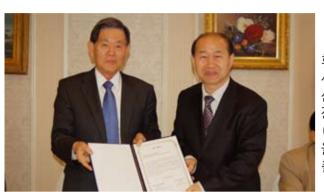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 민 목사)는 17일 오후 5시30분 OC 제일장로교회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2012년도 이사회와 회장단과 임원

을 구성하고 2012년도 새 사역계획 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와 후원이사 회로 구분해 ▲실행이사회는 △이



OC교협회장 엄영민목사가 신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기총 대표 회장 송정명목 사와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 장 남석진목사 (우)가 협약식 을 마치고 기념 촬영했다

미기총-한국 글로벌선진학교 MOU 협약

미주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 정명 목사)와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 남석진 목사) MOU 협약식 이 19일 오전 12시 JJ그랜드호텔에 서 있었다.

협약식에 앞서 박용덕 목사(미기 총 총무)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김 원락 목사(미기총 회계) 기도, 송정 명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신명기 6:6-9의 말씀을 통해 신앙교 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글로벌선 진학교의 교육철학은 자녀손들을 신 앙으로 양육하는 좋은 배경이 될 것 이라 믿어 두 단체가 협력한 것"이라 고 말했다.

이어 양측 대표는 MOU 협약 서 명식을 갖고 협약을 맺었다. 이날 축 사는 이성우 목사 축도는 박세헌 목 사가 맡았다. 이사장 남석진 목사는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전 액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더

많은 MK, PK들을 키우기 위한 방안 으로 미주지역 단체와 교회의 협력 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2003년에 개 교,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배 출을 꿈꾸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 칙으로 하고 영어교육 및 체력관리 를 위해 태권도 수업을 필수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발전과 삶 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강 한 학습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근성교육, 글로벌 언어교육, 전 문성을 위한 기본 기반 지식강화, 관 계능력 증진 교육 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본교는 250여명의 교수진으 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100여명이 졸업, 한국 명문대학과 신학교로 진 학하며 많은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 에 입학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계백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1-20 FORM WY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ehoo.com TEL, (219)799-9900 PAX(219)799-9904

성명의말씀 / /

Word of Life Books

GBC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이 주최하고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익 목사),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 남가주목사회(회장 김영대 목 사), OC 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 OC기독교전도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공동 후원한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17일 윌튼장로교회(담임 김도석 목사)와 18일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에 서 각각 개최됐다.

17일 음악회는 GBC미션코랄, 이 은수 목사, 지명현 전도사, 구현화 사 모, 조영석 전도사, 허훈 전도사가 무 대에 올라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 다. 또한 남가주장로성가중창단과 랜디 김 빅밴드가 찬조 출연해 성탄 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말 4: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변영익 목사는 "예수님은 죄에 매어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해방자 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형제와 형

The /

one love...one life..

사장 윤성원 △총무이사 박용덕 △ 이사 정영수 박학선 양금호 이종은 양문국 한기홍 신원규(이상 목사) 등 증경회장들로 구성됐고 ▲후원 이사회는 △이사장 정호영 △이사 이석봉 박풍산 전준홍 김영수(이상 장로)로 구성됐다.

아울러 새해 2012년 OC기독교교 협 사역계획은 △1월 7일 OC단체장 초청 조찬예배 △1월 9일 이취임예 배 및 신년하례회(장소:OC제일장로 교회) △1월 14일 미주한인의 날기 념 감사예배(장소:남가주사랑의교 회) △3월 SBM세미나 강사 황의영 목사(장소:세리토스 소망교회) △4

월 부활절연합새벽예배 △5월 사모 Blessing Night △6월 OC원로목사 회 초청위로여행 △7월 청소년선교 를 위한 찬양집회 △8월15일 광복절 기념예배(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와 공동 주관, △8월 OC평통, OC교협 연합조찬기도회(장소:나침반교회) △9월 야외임원회 △9월 차세대 교 회정착과 부흥을 위한 Solution세미 나 강사 김만형 목사(서울친구들교 회 담임) △10월 영대각성집회 △11 월 이사회 및 총회 △12월 교회연합 메시아연주회 △12월 사랑의쌀 나 누기 등을 발표했다.

특별한 것은 ▲지역사회 및 미 교 계와의 연합기도회 및 교류를 통해 미국의 부흥운동에 작은 불씨를 키 워갈 것과 ▲다음세대들의 교회정 착과 부흥을 위해 차세대연구소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선 교를 펼쳐갈 계획이다.

〈정리:이성자기자〉

KAFHI정승 호 목사와 소 리엘 지명현 전도사가 동아 프리카 어린이 들을 위한 크 리스마스 콘서 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소리엘 지명현 동아프리카 어린이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AFHI)는 소리엘 지명현과 함께 동아프리카 기아 난민촌 어린이들을 지원하기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12월 23일(금)부터 25일까지 남가주 지역에서 개최한다.

장소 및 일정은 △23일(금) 오후 8시 다솜교회(이근환 목사) △24일 (토) 오후7시30분 대흥장로교회(권 영국 목사) △25일(주) 오후 5시 오 렌지힐교회(백창호 목사)이다. 입장 료는 무료이며 콘서트 현장에서 감 동 되는대로 헌금하면 된다.

미주기아대책(KAFHI)사무국장 정승호 목사는 "지난 11월 메릴랜드 에서 동아프리카 구호를 위해 행사 를 가져 2만 달러가 지원됐다"고 밝 히며 "성탄을 맞아 자녀와 이웃에게 선물을 하는데 동아프리카에서 굶어 가는 아이들에게 성탄선물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콘서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현재 아프리카 기근이 심각한 수준을 넘 어섰다. UN이나 여러 구호기관에서 G20 주요국에게 긴급 지원을 호소 하고 있지만 별 호응이 없는 상황이 다. 이 지역 기근은 만성적이다"라고

지명현 전도사는 "소리엘로 찬양 사역을 한지 21년째를 맞았다. 그동 안 한국 밀알심장재단 등을 통해 긍 휼사역에 동참해왔다"고 설명하며 시카고집회 때 국제기아대책을 만나 게 되고 이 단체의 활동이 극빈지역 에 식량과 더불어 복음이 함께 전해 지는 것을 보면서 동참하게 됐다. 특 별히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의 미 있게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는 동아프리카 부룬디 의 아이들과 결연행사를 겸해서 열 리며 세 번째 날인 25일에는 지명현 전도사를 국제기아대책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콘 서트는 '야곱의 축복', '나로부터 시 작되리'등 소리엘의 히트곡과 'Oh Holy Night', '고요한밤 거룩한밤' 등 캐롤을 부르게 된다.

동아프리카 기아 난민촌 어린이들 을 지원하기위한 소리엘 지명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대한 문의는 다솜교회(562)405-1988, 대 흥장로교회(310)719-2244, 오렌지 힐교회(714)633-3104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강준민 목사 '올해의 동문상' 선정

APU 한인동문회 주최 2011 아주사의 밤

에 개최됐다.

2011 아주사의 밤이 아주사퍼시 픽대학교 한인동문회(APU 한인동 문회 회장 류창식 목사) 주최로 APU

ne Banquet Hall

www.theonehall.com

1%의 차이가 명품 워딩을 만듭니다 The(H) 결혼식, 동전지, 세미나, 각종영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동부캠퍼스 내 UTCC 홀에서 성황리

연말 송년회로 모인 이날 행사는 8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APU 에서 수학한 동문들이 모여 교제하 며 각자의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 을 가졌다. 또 동문 가족과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색소폰 연주, 찬양 등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교재 학생인 소병헌 전도사와 본교 동문 김숙영 사모, 그리고 APU Korean Chapter Men's Quartet의 특별찬양

이 있었다. 이날 참여한 동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스페셜포토타임을 가져 축 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특별히 APU 한인동문회를 위해 힘써온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에게 올 해의 동문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 기도 했다. 이날 아주사의 밤은 박성 민 부총장이 APU한인동문들과 그 들의 사역을 위한 축복기도를 가진 후 마쳤다.

APU한인동문회는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의 총동문회(회장 크레익 월 레스 목사)에 소속된 한인동문회로 서 공식 명칭은 APU Alumni Korean Chapter이다.

〈박준호 기자〉



2011아주사의밤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수님탄생은 하나님의 지상최대 선물"

필라교협 2011년 성탄축하 연합찬양제 성료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 회(회장 이대우 목사)는 지난 11일 오후 6시 벧엘교회(담임 안재도 목 사)에서 2011년도 성탄축하 연합찬 양예배를 드렸다.

행사는 윤상철 목사(음악분과위 원장) 사회로 200여명의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에 이어 13개 프로그램으로 진 행됐다. 이날 전용대 목사(좋은소식 대표), 안디옥교회 할렐루야찬양대, 벅스카운티교회 혼성중창팀, 순복음 중앙교회 피아노 및 찬양, 영생장로 교회 크로마하프 찬양단, 새한장로 교회 찬양대, 낙원교회 중창팀, 비브 리칼신대 중창팀, 세천교회 바이올 린, 몽고메리교회 중창팀, 목사사모 일동 찬양, 새한교회 헌금특송, 벧엘 교회 찬양대 등이 참가했다.

예배는 박상욱 장로(제2부회장) 기도에 이어 이대우 목사가 요한복 음 3장16절을 인용, "하나님의 선물'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지구상 최대 선물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 자"고 말했다.

서장석 장로(회계) 기도에 이어 북 한 어린이 돕기 헌금이 있었고, 마지 막 순서로 "할렐루야"를 합창한 후 안재도 목사(증경회장) 축도했다. 이 어서 박등배 목사(부회장) 기도 후

벧엘교회서 제공한 다과로 친교를 나누었다.

한편 총무 김선훈 목사는 △27일 은퇴목사 및 사모위로 잔치가 영생 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신년 하례 기도회(설교 김남수 목사/프라 미스교회 담임)가 1월 8일 안디옥교 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있으며 이날 모금된 헌금은 북한 어린이들 을 돕고 있는 샘선교회에 보내진다 고 광고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필라교협 이단대책위 조직

대 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 회(회장 이대우 목사)에서는 지난 14일 이단 퇴치에 앞장설 조직을 교 단별로 새롭게 구성해 발표했다. 필 라교협은 이단 침투에 강력 대처하 기위해 앞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지역과도 연계해 이단 퇴치 운동 을 벌이기로 했다. 새로 임명된 명단 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창만(온누리순복음 교회) △총무: 차명훈(벤살렘감리교 회) △위원: 김선훈(세천교회), 김풍 운(벅스카운티장로교회), 박도성(필 라 구세군), 안문균(주님의교회, 침 례교), 이대우(필라한빛성결교회), 전영현(서광장로교회)(이상 목사).

〈기사제공: 필라교협〉

남해안 순회 의료선교사로 귀향

선교사 이종성 목사 환송예배 및 출판기념회

선교사 이 종성 목사(사 진) 환송예 배 및 출판기 념회가 지난 17일 뉴욕실 로암장로교 회(담임 김종 덕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에서 30여년간 산부인 과 의사로 일하면서 목사로 사역해 온 이종성 목사는 한의사, 시인, 화 가, 사진작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갖 고 있다.

이 목사는 "의사가 되어 귀국하니 금의환향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 의촌 낙도로 가는 의료선교사"라며 "의사 누가를 데리고 소아시아와 지 중해의 섬들을 선교한 바울의 심정" 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해양의료선교회 일원으 로 2012년 1월 경남 진주복음병원으 로 의료선교를 떠난다. 해양의료선 교회는 남해안 500여 개의 낙후지역 을 순회 진료하며 건강증진 질병예 방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 음을 전하는 선교기관이다.

이날 예배는 김종덕 목사 사회로 기도 김종훈 목사, 특송 박영수, 설 교 김형훈 목사("위대한 선교사 바 울", 행19:21-22), 축사 윤세웅 목사, 답사 이종성 목사, 색소폰연주 최지 형, 축도 유재도 목사의 순서로 진행 됐다.

2부는 이 목사의 시집 "당신의 음 성" 출판기념회로 진행됐다. 이 목사 의 부인 허금행 사모의 사회로 개회 기도 박기태 목사, 시낭송 김금수, 시 평 이계선 목사, 시낭송 소피아채, 시 인말씀 이종성 목사, 찬양연주 최지 형, 축사 조삼경 박사, 이호제 박사, 김장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폐회기도는 정인화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제 6회 싱글 패밀리 뱅큇 성료

FMC(가정사역상담소)와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은 한해를 돌 아보고 어려운 상황가운데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애써온 한부모들 (Single Parents)과 자녀들을 위해 12월 11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왕 성식당에서 뱅큇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예배로 시작돼 식사 와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 으로 개임을 즐기고 푸짐한 경품도

안겨줬다.

(Holidays)이 되면 상대적 빈곤감 가운데 자칫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 달리기 쉽고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두세 가지의 일을 하는 싱글 부 모들은 더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싱글 패밀리 뱅큇을 통해 혼자 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커넥션을 만들고 확대가족으로 서로를 돌아 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한 부모 가족들은 휴일

본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FMC와 FBM이 주축이 됐으며 남가 주사랑의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온누리교회, 로뎀교회, LA비전교회, 미주비전교회, 은혜교회 등 여러 교 회 한부모들과 자녀 90여명이 참여 했다. 또한 올해에는 한부모 사역에 헌신적인 참여한 지도자 3명에게 표 창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FBM 연락처:(714)514-6690

〈이성자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한국 교회 반응

[미션라이프]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접하 며 한국교회는 충격 속에 사태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 교회는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라는 데 한목 소리를 냈다. 교계 지도자들은 "통일은 도적같이 올 수 있다"면서 "냉철 한 자세로 자유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 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2만 탈북자들에겐 역사적인 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수·진보교회 모두 평화무 드 염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19일 논평을 내고 조문 단을 구성해 남북 갈등 해소의 계 기로 삼아야 한다는 '파격적' 제안 을 했다. NCCK는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사망에 애 도를 표하며, 슬픔

과 고통 가운데 있

는 북녘 주민들에 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

기를 기도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를 포함 하는 조문단을 구성,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CCK는 또 "국제사회 는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의 안정 이 깨지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해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 회), 미래목회포럼 등은 북한의 신 앙 자유와 인권 문제를 먼저 지적 하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 문제를 거론했다.

한기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정일 위원장의 죽음은 북한 정세 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라며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북 녘 땅에서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 고 종교가 억압당하며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동포들이 없기를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아직도 북한이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사망은 한반도에 정치적 불안정과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킨 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북 한은 앞으로 평화를 저해하는 어 떤 도발이나 전쟁 시도도 하지 말 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 총회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 권 아래 있는데 김정일 사망이 한 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 로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 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는 이번 사건이 향후 통일을 앞당 기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 기도 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다. 이 목사는 "조선그리스도교연 맹에 따르면 북한에 공식 교회는 봉수·칠골교회와 500개의 가정교 회, 1만2000 성도가 있다"면서 "남 북관계가 회복되고 다양한 교류 가운데 북한 교회들이 다시 서도 록,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과 북한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 길 기도하자"고 조언했다.

한국교계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은 "김정 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대북 인도 적 지원이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이 모아지길 기대한

> 다"며 "기아대책 은 북한의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중 심으로 사업을 진

행해 왔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 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인 강철호 서울새터 교회 목사는 "오늘은 2만 탈북자 들에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 러나 우후죽순 신흥세력들이 등장 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 혼란이 가 중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을 등에 업은 세력이 득세할 것"이라고 전 망했다. 강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고 혼란의 때에 북한 주민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지 금은 냉철할 때이자 기도할 때"라 고 강조했다.

"통일은 도적같이 와…평화위해 냉철히 기도할 때"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 "북한에도 100여년 전 평양대부흥 당시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염원한다" 며 "북한의 지도부도 이제 호전적 인 사고를 버리고 역사와 국제정 세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도 "북한이 우선적으 로 해야 할 일은 선군정치와 그에 따른 핵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 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라 며 "북한이 괄목할 만한 인권 개선 을 보인다면 한국교회는 더 적극 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냉철한 자세로 차분하게 기 도하자=이날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접한 교계 인사들은 냉철한 자세 로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 가 되도록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고 부탁했다.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주교는 "예측하지 못한 사망 소식에 무척 당황스럽다"면서 "무엇보다 정치 적 풍랑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 된다"고 말했다. 김 주교는 "이 사 건이 순수하게 남북의 평화적 통 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 다"면서 "무엇보다 크리스천들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차분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비판 교단 회원자격 제한 등 '전면전 선포' 한기총 임원회, 음해세력 강력대처 13개안 통과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 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을 비판해온 4개 교단에 대해 행정보류 처분을 내리는 등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강 력 대처키로 하는 등 13개안을 통과 시켰다.

길 대표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기총은 대한예수교장로 회 대신과 고신, 합신과 예수교대한 성결교 등 4개 교단을 행정보류 결정 을 내렸다. 행정보류가 되면 회의참 석 불가 등 회원자격이 제한된다. 예 장 통합 등 9개 교단에 대해서는 공 문을 보내 한기총 정상화를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은 조성기 최삼 경 양병희 목사를 해당 교단에 총대 교체를 요청키로 했다. 한기총 질서 대책확립위원회는 6개 교단이 '관상

기도' 문제 등을 이유로 헌의한 G교 회 원로 목사의 이단 관련 여부를 조 사, 보고키로 했다. 최근 한기총 임원 선거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청 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 통령에게 항의를 표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 밖에 예장 합동보수 (망원측)와 정통개혁(총회장 김인식 목사) 등 3개 교단과 옥수수재단(이 사장 홍재철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승인했다. CBS, 들소리신문, 기독교 보. 뉴스앤조이 등 교계 언론에 대해 한기총 출입금지를 결의했다.

임원회의 결과는 22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 서 열리는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한기 총이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판단으 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했다"며 "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모으고 기도와 관 심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정중동'속 연대 등 기존 입장 고수

한기총으로부터 회원 자격 제한받은 4개 교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 장 길자연 목사)가 15일 4개 회원 교단 에 대한 사상 초유의 행정보류를 단행 했지만 해당 교단들은 크게 개의치 않 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 신, 고신, 합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 성) 교단은 16일 한기총 집행부의 업무 처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일일이 대 꾸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장 대신(총회장 강경원)은 이날 오 전 임원회를 열고 한국 교회와 한기총 이 바로 서는 데 모든 노력을 하기로 했 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같은 입장을 취해 온 9개 교단과 협력하기로 했다. 임원회 에서는 한기총이 차기 대표회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요셉 전 총회장 의 출마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 보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 을 무시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관계자는 "한기총이 몇

차례 사과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교단으 로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합 기관인 한기총을 바로 세우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 고신(총회장 정 근두 목사)과 합신(총회장 권태진 목사) 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신은 지난달 11일 임원회가 결의한 것을 지 속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당시 임원회 에서는 총회한기총대책연구위원회의 보고가 나올 때까지 한기총에 대한 모 든 활동을 유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예성 등 일부 한기총 실행위원 과 총대들은 16일 한기총 길자연 대표 회장과 김운태 총무, 배인관 재정국장 등 3명을 공금 횡령을 이유로 서울중 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는 이들이 아이티 대지진 성금과 한기 총 회관 건립기금 등을 전용했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김정일 사망, 대북 선교에 긍정적

국내 선교단체 · 구호단체들 변화 전망

국내 선교단체와 구호단체 관계자 들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 향후 대북 선교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대표 회장은 19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 난 60년 동안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 다"며 "성도들의 간구와 신원을 들 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모양으 로든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회장은 "북한 후계 구도에 따 라 예측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김 정일 사망은 긍정적 신호로 본다"며 "선교 환경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교회세우기연합 이종만 사무 국장도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한 국교회의 북한 선교도 달라질 것"이 라며 "김정은 세력에게 해외파가 많 아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김정일의 부재로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의 개방정책도 영향을 주게 되어 선 교적 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A선교사는 "희망이 없던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지금 은 한국교회가 북한 지하교회와 교 인들을 통해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A선교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 상당수가 절 대적 존재에 대한 의지 심리가 마약 이나 미신으로 향하고 있어 이럴 때

일수록 기독교는 아편이 아닌 절대 희망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굿피플 김창 명 회장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 속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교회와 민 간단체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 의 정치적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 이란 전제 아래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50여개 대북 지원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 민협·회장 박종철)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0세 노부부 올해는 2억…자선냄비 또 놀랐다

이웃사랑의 대명사인 '빨간색 자 선냄비'는 언제나 감동과 기적, 기쁨 과 행복을 낳는다.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충정로 한 국구세군 본부에 깔끔한 차림의 90 세 노부부가 방문해 1억원씩 2억원 의 수표를 자선냄비에 후원했다. 이 들 부부는 이날 또다시 이번에도 어 디에 사는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모르게 해 달 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 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돕는데 써 달 라"고만 당부했다. 그리고 "진짜로 오늘밤은 다리를 쭉 펴고 마음 편하 게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한 미 소를 지었다.

손을 잡고 찾아와 5000만원씩 1억원 의 성금을 전달했던 바 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올해도 1억 1000만원권 고액 기부에서부터 감 사편지, 금반지, 금귀고리, 교통카드,

각종 상품권 등 사랑이 가득 담긴 다

이들은 2년 전 이맘때 부부가 함께

양한 물품들로 펄펄 끓고 있다. 지난 16일 밤 서울 청계천 오간수 교에 설치된 대형 자선냄비 모금함 수거 과정에서 1000원권, 1만원권, 5 만원권 등이 가득 담긴 8개의 봉투 가 발견됐다. 구세군은 19일 은행 계 수 과정에서 이 금액의 합계가 1174 만5000원인 것을 확인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따라 교계, 위헌 소송 · 궐기대회 등 지속키로

'동성애 차별금지' 등 급진적 내용 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서울 시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부터 관 내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 생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 등을 적시한 조례안 통과 에 대해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출 산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 회장 윤희구 목사)는 위헌 소송을 제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언 사회 인권복지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과정 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큰 실망을 했다"며 "다음 선거에서 오 늘 이 행동을 반드시 평가받게 할 것" 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견 목회자 연합체인 미래목회포 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 개선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

력 집단으로 만들고 정치세력화하는 조례는 반근대적인 입법으로 철회돼 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 속 회원 25만여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올곧은 대 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목회자와 성도 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생 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통과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은 "일부 의원들이 정치논리에 교육 양심을 팔아먹은 것 같다"며 독소조 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안을 처리한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표

했다. 대학생 김성은(22)씨는 "동성애 자 및 동성애 옹호 단체, 전교조 등 급 진 성향의 몇몇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6개월여 서명을 받아 발의한 조례안 이 통과되다니 이는 정치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조례안 통과에 대해 관 심을 보이며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올 렸다. 아이디 로즈는 "자칫 학생들에 게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 다"고 평가했다. 선민네트워크, 밝은 인터넷 등 교계 및 30여개 시민단체 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 궐기대 회를 열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www.sbm.or.kr



변화판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Tel, 212-947-8482 뉴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97850 Tei 201-348-9201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DIENNE THOILFE! X

www.dynamicsworld.com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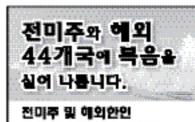


< 월 간 > 미주프리스찬 다이제스트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Flushing, NY 11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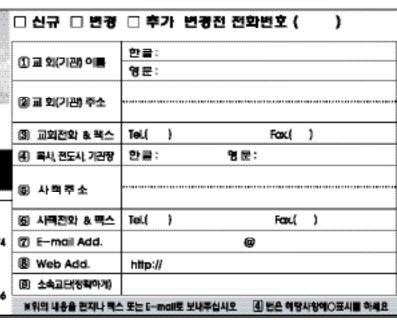


교회 쭈소쪽 수백 신청서 교회 기목교 기관, 기목교인은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꼿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HY 11355 Tel(718)586-4400 Fax(718)886-0074 E-mail: NYSchpress.net

Tel(323)665-3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 net



21세기 선교한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와 제언

조동진 박사(동서선교연구개발원장)

올바른 선교는 올바른 세 계관과 올바른 역사관, 그리 고 올바른 성서적 시관(時觀) 위에 한국 교회의 선교의 기 초가 확립되도록 하는 지도 력이 더 우선적인 급선무라 고 생각한다.

1. 원시 선교로서의 신약 시대의 사도적 선교의 원형 은 프리 크리스텐덤(pre-Christendom)의 역사 위에 서 시작되었다. 콘스탄틴 이 크리스텐덤(Christendom) 위에서 지속된 그레코 로만 시대와 그 뒤를 이은 교 황 시대의 로마가톨릭 선교,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프로 테스탄트 선교는 크리스텐

기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서의 정체성(identity)을 가 질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서구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가 아 닌 비기독교 세계 속의 대표 적 이방종교 국가인 일본 제 국의 식민지 정권 지배 아래 서 억압과 굴욕 속에서 복음 을 받아들인 특수한 민족으 로서 기독교를 민족의 종교 로 수용하여 민족 해방의 주 체세력 역할을 하였다. 이러 한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에 서 선택받아 비기독교 세계 의 선교의 선도세력이 된 한 국의 21세기 선교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의 특수성 (uniqueness)을 가진 각별한



로 출발해야 한다.

4. 21세기 세계선교는 콘 스탄틴 이후 2000년간 계속 되던 서구 크리스텐덤의 제 도적 교회시대의 황혼으로 사도적 선교원리에로 회귀(回歸)라는 새벽을 열기 시작

@21세기의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는 먼저 거대한 성당과 교회 건물 없는 믿는 자들의 신앙공동체로서의 Churchless Christianity의 폭발적

거주선교(Non-Residential Missionary)' 운동이 널리 확 산되고 있다.

@선교대학원들이 그 명칭 에서 '선교(Mission)'라는 이 름 대신 '기업(Business)'으 로 바꾼 지 오래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21세 기 세계선교 트렌드의 급격 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5.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 동설과 그 이후의 지동설에 따라 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콜럼 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지구에 대한 패러다임 이 변한 것처럼; 또한 아이 작 뉴튼의 만유인력설 이후 과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20세기 아인슈타인 의 상대성이론 이후 과학의 혁명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된 것과 소련 우주인의 우주 왕복과 미국 아폴로 호가 달 에 착륙한 이후 우주시대의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처럼; 신생 탈식민지 독립국가들이

바른 성서적 시관 위에 선교 기초 확립하는 지도력이 우선 종말론적 시대에 적응하는 선교정책전략 펼칠 용기 있어야

덤으로부터 비기독교 세계 (heathen world)를 향한 것 이었다.

2. 그러나 이제 21세기 비 기독교 세계(non-Christian world)로부터의 선교의 주 도세력인 한국을 비롯한 제 3세계 선교 세력은 서구 크 리스텐덤들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탈식민지 신생 독립 국가들(decolonized newly independent nations)로부 터의 선교의 시대이다. 이러 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 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21세

역할(distinctive role)이 주 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21세기 비기독교 국가 로부터의 새로운 선교세력 의 지도력은 전통적 서구 기 독교 국가인 크리스텐덤으로 부터의 비기독교 세계를 향 한 전통적선교의 계승 세력 이 아닌 사도시대의 선교와 같은 약한 자와 눌리운 자와 빼앗긴 자들로부터 강하고 적대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을 향한 선교의 세계관 위에서 의 21세기 새로운 세계선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초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 상은 중국의 가정교회와 아 프리카의 비제도적 신앙공동 체,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신앙공 동체 같은 새로운 교회운동 들로 입증되고 있다.

b성직자 중심 선교사 파 송제도가 쇠퇴하면서 평신 도 전문인선교운동이 확산되 고 '세속사업(Secular Business)'을 통하여 민중과 민족 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 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단기선교사(Short Term Missionary)' 또는 '비

세계선교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비기독교 국가로부터 의 21세기 새로운 선교세력 은 우주시대의 새로운 공간 개념 같은 새로운 역사관과 시관(時觀)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시관은 "현재와 과 거가 단숨에 비약하여 미래 의 창조 속에 용해되는 '폭발 적 시간'을 의미한다. 이미 우 리는 지난 20세기 후반 '교체 적 시간'인 과거와 미래가 끊 임없이 경쟁하는 시간을 지 나 미래가 현재가 되는 '추진 적 시간'을 통과했다.

〈15으로 계속〉

건/강/칼/럼 🕮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감사와 정신 건강

추수감사절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두들 감사하 는 날이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날이다. 그렇 게 바쁜 뉴욕시가 차분하다. 플러싱과 맨해 튼의 번화가까지도 모두 한산하다. 함께 모 여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 다. 참 평화의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하나님 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축복에 감사한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늘 함께 한다면 얼 마나 좋을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날이 더 의미 가 있는 것 같다. 나누는 마음들이 미디어들 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들려온다.

그런데, 다시 바쁘기 시작한다. 감사절 다 음날부터 파격적인 가격인하로 시끄럽다. 아 니, 감사절 저녁부터 고객들을 끌려고 안간 힘을 쓴다. 뭐, 고객들의 주머니가 다른 데에 쓰여지지 않기 위해 감사절 저녁부터 여러 백화점에서 문을 연다나… 70% 가격 인하! Extra 15% Discount! 백화점들의 손님 끌기 상술이다. 연말 매상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의 전쟁통이다. 감사절 전부터 거리에는 크 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기 시작한다. 아니, 어 느 FM 방송에서는 감사절 전부터 캐롤송을 내어보냈다. 성탄의 참 의미가 상업 물질주 의에 가려져 버린 것은 아닌지… 갑자기 마 음이 쪼그라 들어지기 시작한다. 세태의 분 위기에 휩쓸려 마음이 갈팡질팡하기도 한다. 힘들고 고달픈 사람, 즉 남을 돌아보는 마음 의 여유는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다.

연말을 맞이하여 불안과 우울 증세를 호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연말이 싫고 힘 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민 생활의 고달픔에 찌든 우리도 예외는 아 닌 것 같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연말 분위기 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한 듯하지만,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다. 짜증스러운 일들이 은근 히 쌓인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감정의 격 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추수 감사절의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새 사라진 분위기다.

그래도 신앙을 통한 겸손한 마음으로, 물 질주의를 극복하는 의연한 분들이 있다. 그 분들은 주 예수님을 닮는 겸손한 믿음으로 동시에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사 에 덜 휘말리면서 짜증스러운 기분이나 불쾌 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초연의 능력을 보인 다. 다시 말해서, 그 분들은 항상 감사와 인 내의 자세로 살아가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 처럼, 연말의 어수선하고 복잡한 마음보다는 삶의 자세가 상당히 차분하고 심지어는 어 떻게 나누고 베풀려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 이다. 이 분들을 통해서, 정신 건강은 참 믿음 의 태도의 요소인 감사와 인내 정신과 상당 히 밀접함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와 인내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신적 특징으로 간주되어진다. 우리의 사고를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끄 는 원천이다. 이러한 사고 전환은 우리에게 밝은 기분과 감정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말 정신 건강! 긍정적인 사고! 감사와 인 내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는 생각이 연말 에 더 절실히 필요하게 여겨진다.

필자가 아는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은 감사 요법으로 생활의 스트레스를 이겨낸다고 한 다. 어느 순간부터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신적 긴장 감이 아주 줄었고 마음의 여유와 안정이 자 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에는, 더 가지는 것 에 집착했는데, 이제는 더 나누는 마음과 태 도가 자랐다고 간증했다. 신체 건강도 좋아 졌으며, 무엇보다도 삶에 대해서 높은 의욕 과 만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이 나눔 태 도 속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감사와 인내의 태도 발전이 있었다.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샤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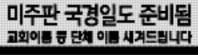
-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테이타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 ▶ 매주 2회 항공 직 수입
- ▶ 신속하고 정확하게 핸뜰
- ▶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Sit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해 드립.
- E-mail: gospelmai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을 보내주세요
- ▶ 사용시 질문 있으실 경우 **1** .800.404.1171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일반서적 용품

기독교에 관한 모든것

www.buvcalendar.com @# |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2012년 미주판 다이어리지금주문하세요 다이어리 맞춤제작 + 최저기격 보장 다양한 디자인과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



설립된다 단 # 기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류가 상호 긴말한 연관하여 세물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낱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2300 ANSI LUMENS 2000:1 2600 ANSI LUMENS 2200:1 3000 ANSI LUMENS 2000:1 3300 ANSI LUMENS 600:1 5200 ANSI LUMENS 1200:1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평반, 원등의 교회판으를 전문업체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라진 기능! 선명하고 날은 LCD학인 - 원유에 가까운 연주 본체 고용질 스피커 MICHAEL USB 호스트 기능 - ወንም ድ 사용 티치스크린 방식 장시간 연속개성 HIT상품 미주충판 음악 FM라디오.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써일합니다. 구인 다 아제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출괴

해저한 애프터 서비스 좋은 화결의 제품, 저렴한 가격 소행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m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登明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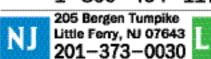
최저가격 보장 지에남쪽입의 선원





인터넷 쇼핑몰 www.gospelmall.com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음향, 영향, 쪼명 (213)447-4011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63)



연실적인 이슈 / 유스문화 이예하기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 서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 다. 지난 2회에 걸쳐 우리 사역자들이 유스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배워야만 하는 이슈(Issue of Youth Culture Literacy)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구원과 죄사 함과 같은 불변의 진리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고 타당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것이 가지는 강점들(교육의 효율 성, 진정한 소통, 예방적 대응, 그리고 교량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역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잘 알게 되고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게 되어 문 화적 적합성을 가진 사역을 행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 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적합성을 견지하는 사역의 첫 단계는 역시 우 리 친구들의 문화를 잘 배우고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 다면 과연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잘 배우고 잘 알 수 있 을까요? 정답은 하나,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방 법은 우리 사역자들이 최대한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출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문화 를 경험하는 그대로 동일하게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 다. 이는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른 문화권의 지역 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섬기고자 하는 곳의 문화 하기에 충분할 만큼, 또한 이를 실질적 교육 사역에 효 력화 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배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친구들과 밀접하게 교통하 여 위와 같은 사역자님들의 노력을 그들에게도 알리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유대감이 더해 질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잘 배우고 이해하여서 문화적 적합성을 견지한 효과적 교육 사역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실천적 제안이 있 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문화의 견지에서 교육하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 안에 있는 해악된 부분 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친구들 에게, 사역자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비판 자가 아닌 이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준 다음,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문화 및 그 구체적 내용 및 패턴 그리고 행동양식 등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 할 수 있 는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때 기술적으로 볼 때, 너무 의도적으로 하지 않 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처음에는 그저 사역자들 스 스로 직접 경험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소소하게 잡담 을 나누듯이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 음도 열고, 그 열린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스 스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여전히 성장 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미 비판적 성찰적 사고가 가

유스 문화에 노출함으로 배우고 이해하며 대화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경적 해답 제시해야

를 배울 때 하는 것과 흡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보는 영화를 보고, 그들이 즐기는 TV프로그램들을 보고, 그들이 듣는 음악을 듣 고, 그들이 자주 찾는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그들이 즐 겨 하는 트위터니, 미니홈피니, 혹은 어플이니 하는 것 들도 접해보고, 그들이 하는 게임들도 해보는 것입니 다. 또한 그들이 주로 가는 레스토랑, 쇼핑몰, 그리고 여타 다른 장소들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 아하는 음식, 옷과 신발 및 여러 물건들도 접해보는 것

이를 통해 그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관심분야와 오락거리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으 로 어울려 시간을 보낼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내며, 어 디에 가고, 또 무엇에 대해 즐거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 을 것이며, 그들의 정서를 아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로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주된 영향을 끼치 는 부분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문화 가 그대로 사역자 자신들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들의 경험들을 경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 진실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여 그들과 진실로 소통

능하며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 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성찰하는 일 이 가능합니다.

열린 대화의 장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된다면, 그 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존재하는 "허탄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독인으로서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 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세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하게 명심하여야 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처럼 자신들의 문화에서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대 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용기 있게 대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 그 배경을 면밀하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성경이 무엇 이라 가르치는지 교육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성경 구절과 성경적 혹은 기독교 신 학적 테마들을 분명히 제시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신들의 문화의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거부하여야 할 지, 무시하여야 할 지,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을 요구해 야 할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구어야 하는지 등등—함 께 고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가정예배

교육/생활

주님의 가족 (마12:46-50)

48-50절은 주님께서 찾아온 기족을 만나주시지 않고 자신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족 은첫째,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 신내아버지의 뜻대로하는 자는 내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에 따라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들과 구주로 믿고 영 접했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됐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를 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기를 지고 쫓아기는 사람

농부의 자세 (마13:1-3)

어느 철학자가 "세상에 수많은 직업 중에 농부가 가장 하 나님과 닮은 직업을 지닌 자"라고 했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 두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섭리사역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 입니다. 우선 농부는 성실합니다. 파종기를 맞춰 씨를 뿌리고 추수기에 맞춰 추수합니다. 우리 주님도 성실하셨습니다. "아 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하시며 안식일에 도 쉬지 않으시고 영혼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 농부는 자

감정주의 신앙 (마13:4-6)

5.6절 말씀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 니다. 주님은 그런 씨는 바로 싹이 나오나 바로 죽는 씨라고 하 셨습니다.이런 유형은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열광 주의에 빠져 찬양하다가 금새 마음의 감정에 따라 시험에 빠지 기도하고교회도안나오는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감정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더러 있습 니다.기분이좋으면은혜가충만한것으로여기고반대로기분

세속적 신앙 (마13:7)

7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가시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눅8:14)으로 표현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신앙인입 니까? 주님을 믿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람들입니다.진리와생명의 말씀보다세상의 축복과부를 얻 으려고 주님을 좇는 이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성경은 부 하 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들게 되어 시단의 가시에 찔리

옥토밭 신앙 (마13:8)

8절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밭, 즉 참된 신앙인의 삶 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잘 경작된 밭이 참된 신앙인 의 삶입니다. 주님께 연단을 잘 받은 마음은 돌짝 같은 죄와 불 의한 것들이 제거된 마음입니다.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잘 받는 성도만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히12:10,11). 둘째 는 태양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눅

있는 자 (마13:9-23)

주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지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12절)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들을 귀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 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실천하므로 더 풍성한 진 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고후9:10). 반면에 '없는 자'란 마음이 강퍅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를 기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그 받은 말씀마저도 사단에게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마10:38)은 그리스도와 동고동락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때에만 함께하고 불리하고 수고를 해야 할 때 도피하는 지는 가족이 아닙니다. 셋째, 주님을 가족처럼 내 집안으로 모시 는시람입니다. "볼지어다내가 문밖에 서서 나로 더불어 먹으리 라"(계3:20). 내 맘에서, 내 삶속에서 주님을 쫒아낸 시람은 가족 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동고동락하며 더 불어살아가는성도들이됩시다

기가 심은 것만 거두고자 합니다. 즉 순리대로 삶을 사는 것 입니다. 주님도 사탄의 '한탕주의' 시험(마4:9,10)을 물리치시 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또 농부는 한해 농사를 망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다음해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 버지의 뜻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십 배, 육 십 배, 백 배의 결실을 거두고야 맙니다. (딤후2:6).

이 언짢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신앙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근거를 감정에 두어 서는 안됩니다.성경은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 교훈하고 있습니다(롬5:3). 감정뿐 아니라 지식으로 또 의지 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에 신앙 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딤전6:10). 주님은 먼저 그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마6:33) 이들은 '무엇을 먹을 까무엇을마실까무엇을입을까(마6:31)하는문제만을구하는 지들입니다.그결과조금만문제가생기거나주님때문에손해 보는 일을 만나면 타락하거나 배교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 을 두면 결국 그 마음이 가시 떨기 밭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명 심하시기 바랍니다.

8:15)라고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신앙성장에는 하나님의 양육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둘째로 그 은혜를 받기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분이 많은 밭입니다. 신앙적 거름은 말씀 안에서의 풍성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풍성히 받아 그대로 순종한 결과입니다.그러므로 결국 좋은 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 실을 알고 참된 신앙인의 옥토밭을 가꾸기 바랍니다.

빼앗겨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 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한 종과 같습니다. 영적세계에도 부 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됩니 다. 그러나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심고 실천하십시오 씨는 심어야 열매를 맺고 말씀은 실천해야 그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는 자'가 되어 복의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꼭 계획된 교과과정 안에서 즉 성경공부 시간 등에서 행할 필요는 없습니 다. 오히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열린 대화들, 그 연장선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 들의 문화에 대해 베테랑이 되어서 문제점들 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성경적 관 점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언제 어느 때고 기회를 얻는 대로 지도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 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그들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인 하라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문화에서 문제점 만을 찾으려 혈안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 상 그렇게 해서는 진정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문화가 가지 는 순기능과 효과적 교육을 위한 좋은 정보들 또한 놓치기 십상일 뿐입니다. 〈계속〉

21세기 선교한국의 미래를 〈14면에서 계속〉

6. 지금 한국 선교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이러한 선교의 새 역사 창조의 '폭발적 시간'이라 는 위기의 시간에 그 위기감이 없 는 한국 교회 선교지도자들의 불 감증의 문제이다. 우리는 미시오 매트릭스의 숫자적 마력에 매혹 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인간 발전과 인간 개발을 향한 무한도전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파괴한 지 오래다. 진화론(theory of evolution)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 질서를 교란시킨 인간은 마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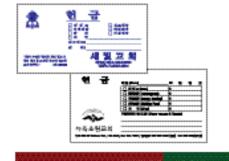
내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 했다. 교회가 동성결혼(homosexual marriage)을 용납하고 성 전환수술(sex reversal operation) 이 보편화 되더니 결국은 생명복 제(生命複製)의 문턱에까지 이르 고 말았다.

7. 한국 선교지도자들은 21세기 가 이러한 지구 종말론적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 국 교회 선교사들은 21세기 종말 론적 시대에 적응하는 선교정책 과 전략을 펼쳐나가는 용기가 있 어야 한다.

〈끝〉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1. IHOP과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주제(제 1318호 9면)

기독교이단대책세미나가 1월 13일 오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김재성 목 사(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와 정이 철 목사(캔톤한인교회 담임)를 강사로 한 이 세미나는 'IHOP(국제기도의집)과 신사 도운동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재성 목사는 "이 신사도운동은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10년 전 이단으로 낙 인찍혔다"며 미국 하나님의성회에서 2000 년 8월11일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다. 정이 철 목사는 "신사도운동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새롭게 계시된 운동으로 늦은비 운동 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늦은비운동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했다. 주최 측은 세미나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신사도운동에 대한 입 장을 정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 미주각 교계 단체 일본쓰나미 구 호성금 모금(제 1329호 10면, 1331 호 9면, 1332호 10면, 1336호 9면)



지난 3월 일본지진 쓰나미 소식 직후 미 주 각 교계단체는 신문매체와 1,500여 통 의 이메일 등을 통해 일본성금모금운동을 펼쳐왔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회장 김정한선교 사)는 베델교회, 나성한인교회를 비롯한 교 회와 개인 19구좌를 통해 30,173달러가 모 금됐으며 이중 광고 및 메일링, 인쇄물 발 행 등의 비용을 제외한 23,934.55달러, 남 가주교협(회장 민종기 목사)는 42,033.45 달러가 모금돼 광고 등 홍보물 비용을 제 외한 37,151,45달러를 전달했다.

한편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한창 연 장로) 회장단이 4월 4일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을 방문, 모금한 일본 구호성 금 1만7천여 달러를 전달했다.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은 4월 30일까지 대뉴욕 지구장로연합회 등을 비롯, 모금된 일본을 위한 성금을 센다이, 치바현, 관서, 동경 등 4, 5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일본선교사들 에게 각 3,000-5,000달러씩 전달했다.

3. 미국장로교(PCUSA) 동성애자에 게 목사안수 허용(제 1334호 1면, 2면)

미국장로교(PCUSA)가 미국에서 동성애

2011년 본지가 보도한

10대 뉴스

2011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더구나 12월 막바지인 17일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일까지 생겨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를 긴장에 몰아넣기도 했다. 2011년 송년호를 제작하면서 본지가 보도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로컬 한인 뉴스를 중심으로 하고 순서는 기사의 경중이 아닌 1월부터 차례대로 게재했다. [편집자주]



자 안수를 허락한 4번째 주류교단이 됐다. 지난 5월 10일 열린 173개 노회가 투표한 동성연애자 안수관련법 개정은 총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찬성 해 통과됐다. 10년간의 토론을 거친 법 개 정안은 7월1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로써 PCUSA는 지난 1972년 그리스도연 합교회(UCC), 2003년 미국성공회 그리고 2009년 복음주의적 루터교회(ELCA)에 이 어 33년간 지속되어온 동성애자 성직 임명 허용 논란에 진보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 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를 허용 한 주류교단들이 교회분열의 수순을 이미 밟고 있는 것처럼, 탈퇴 움직임이나 복음 주의적 장로교회로 교단을 바꾸는 움직임 과 함께 이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PCUSA 한인교회 연합체인 미국장 로교회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는 교 회의 세속화를 개탄하면서 11일 '이 같은 결정은 복음적인 노선을 지키는 미국장로 교 산하 한인교회들과 미국교회들에게 강 요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4.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이단 탈퇴자들 기자간담회(제 1339호 9면)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대표 한선 희 목사)는 한국에서 신천지, 정명석, 안상 홍증인회, 류광수 다락방 등 이단집단에 현 혹돼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극적으 로 구출돼 교회의 품에 안긴 여섯 청년들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여섯 청년들은 그들이 이단에 빠져 활동하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 빠져나와 한 국이단상담소(소장 진용식 목사)에서 개종 교육을 받고 회심할 때까지의 일들을 설명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여섯 청년들은 교 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단에 대한 확실한 정 보와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하 며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공부가 형식위주에서 탈피해 체계적인 성경공부 를 통해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5. 뉴욕 주 동성결혼 합법화...미 역 사전복(제 1340호 1면)



뉴욕 주에서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뉴욕 주 상원은 6월 24일 밤 10시 경, 33대 29로 앞서 주 의회 하원을 통과 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결혼평등법 안'(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 다. 뉴욕 주는 이로써 미국에서는 여섯 번 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됐다. 이들 주 가운데서도 뉴욕 주는 미국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자 가장 인구가 많 은 주로서, 향후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 화를 일반화 해나가는데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결과에 힘을 받은 동성애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뉴욕 주에서의 '승리' 를 발판삼아 타 주들에서도 동성결혼 합 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뉴 욕 주 결혼평등법 통과는 앤드류 쿠오모 뉴 욕 주지사의 개인적 소신과 이에 부화뇌동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상승기류로 치 솟는 동성결혼 찬성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 라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로 미국역사에 결 정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 진다.

6. 뉴욕교협 주최 2011할렐루야복 음화대회 성료(제 1351호 10면)



"뉴욕이여, 생기로 충만하라"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주최한 2011할렐루야 복음화대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프라미스 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시작된 사흘

간의 집회를 마쳤다. 강사 서임중 목사(포 항중앙교회 담임)는 "세계 제일의 도시 뉴 욕은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라며 "할렐루 야대회가 뉴욕에 복음의 물줄기가 되고 마 른 뼈가 살아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7. SB48주민발의안 청원 7,356표 부족, 무산(제 1356호 1면)



동성애 교 육법안인 SB48 저지를 위한 주민발 의안 청원이 필요한 투표 수 504,760표 에 못 미치는 497,404표로 집계됐다. 결 국 7,356표가

모자라 SB48 저지를 위한 주민발의안 청 원이 무산. 따라서 2012년 1월부터 캘리포 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 번 SB48이 무산된 이유는 미국교단 중에 서도 주요교단이 동참을 하지 않았으며, 한 국교회는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미주복음 방송, 남가주교계, OC 교계와 단체들이 앞 장서 한 달 동안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표가 무효가 되어 결국 무산됐다.

8. 뉴욕교협 분열 위기...교회연합회 결성 (제 1358호 10면)

뉴욕교협 분열 위기...교회연합회 결성

뉴욕목사회는 회개문 발표, "지도자로서 부족 통감" 7의 전기총의용 매인 누워고함에 이 들어와 목사와 신도들을 감시와 발언된 제한 소리나 사건 있는 문위기에 제한다. 지난 외국 총의 그 병인은 하는 부만에서나 없어난 의 총의는 연원적 무효 소의당

수 있는 일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다. 해당 후보를 당면시키기 위해 조직 자이고 분들자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상되는 일들이 일어났다"에 소브

37회 정기총회를 마친 뉴욕교협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 24일 총회과정 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25일 김명옥 목사 외 101명이 설립추진위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가칭) 의 결성을 공포했다.

성명서는 "예배당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 와 목사와 성도들을 감시하고 발언을 막는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 심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살벌한 분위 기와 일방적 회의강행 △증경회장의 편파 적 성명서 발표와 발언권 제한 △감사 사인

없는 37회 총회는 원천적 무효 △회장후보 의 회비체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복음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종 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막고 △WCC를 반대 하며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진 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연합했다고 밝혔

9. 청교도신앙 무너지는 미국위해 기도하자(제 1360호 11면)



인종과 교단을 뛰어 넘은 초대형 기도집 회가 11월 11일 파사디나 로즈볼에서 거 행됐다. 'A Line in the Sand'("이때를 위 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4:14)를 표 어로 삼고 시작된 본 기도대회는 백인교회 는 물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대인까 지 참석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

한국이 주관하는 집중기도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송정명목사(미 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와 변영익 목 사(남가주교협 회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됐 다. 본 기도회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주 관하고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목 사), 남가주목사회(회장 박효우목사), OC 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목사), KCCC(대표 김동환목사) JAMA(대표 김춘근교수) 미 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목사)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10. 퀸즈장로교회 2대 담임 박규성 목사 위임(제 1364호 10면)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가 지난 11일 저녁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 로써 설립 38년된 퀸즈장로교회는 2대 담 임을 맞았다. 장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내년 2월말 본 교회 설립기념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규성 목사는 "전도사시절부터 교회 섬 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장 목사 님내외분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 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민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38 년간 장 목사님을 도왔던 그 열심을 제게 도 허락해주셔서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 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 록 하겠다"고 답사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한구교회정보반다

7660七年1471年4171至41711三刊七儿14社早知의 早从至!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김항안 선종욱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항안 목사 저
- 판형: 4×6판 / 80쪽
- 🌘 가격: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신바람 나는

신바람나는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판형: 신국판 / 416쪽

정가: 10,000원

설교 46편

예화 127편



비리 함께 당여 보기 하다로 기준이 이용 지지에 이용 이용에 이 영고도 돌아오게 합니다

네가 네게 바뀌한 듯하 다 이루기카리

(\$20.0)

क्षा मुल्लुस उम्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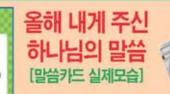
경향한목사가 또한번한국교회와 목소대들에게 전하는 너런것 문화의 4 번역! Why Christmes?

- 왜? 크리스마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가?
-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마당으로 만들어 가는가?
-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교회주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에 대한 심방설교 제공
- 주문 수량만큼 '책갈피'제공



은혜스러운 영상비디오

● 참회. 감동, 소망 결단이 있는 영상비디오 & CD

한국교회정보센터 圖글로리아 www.kcdc.net **824-3004. 5004**